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신동원*

1. 머리말
2. 조선 이전의 의학사 연구
3. 조선 전기의 의학사 연구
4. 조선 후기의 의학사 연구
5. 에필로그

1. 머리말

근대적인 한국의학사 연구는 1930년에 발표된 이능화의 연작 “조선의약발달사”의 출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2010년은 그로부터 꼭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능화는 여러 분야의 한국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약의 발달도 정리했는데, 그는 한국의학사 전문 학자는 아니었다. 그의 저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약제도의 발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李能和, 1930). 그 이전까지는 한국의학사의 몇몇 단편, 그것도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능화의 첫 저작 이래 한국 의학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로부터 62년 후인 1992년 의학사 관련 전문 잡지 『의사학』이 탄생하고, 또 한의학계의 의학사잡지가 1990년대 후반 『대한원전외사학회지』에서 『한국외사학회지』가 분리되면서 질적인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원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과(305-701)
전 화 : 042-350-4647 / 팩스 : 042-350-2380
이메일 : newsdw@kaist.ac.kr

이 글은 『의사학』의 창간 이후 18년간 한국의학사 연구를 이끌어온 것을 계기로 지난 한국의학사 연구를 되돌아보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그중에서 나는 근대 이전 한국과학사 연구에 관한 부분의 정리를 맡았다. 나는 이 글에서 그간 어떤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간단히 보이려고 한다. 엄밀한 연구사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논저 각각의 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옥석을 가려내고, 각 연구의 성취와 한계를 헤아리며,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작업은 내 후속 연구로 넘기고 여기서는 단지 시기별, 분야별 연구의 지형 파악에 그치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분석 대상의 논저가 방대한 것에 비해 특집 기획 논문 집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논문을 통해 그간 근대이전 한국의학사 연구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연구입문자에게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이 글이 좋은 구실을 하리라 기대한다.

근대 이전의 한국의학사 연구 동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 이에 대해 시대별, 주제별 분류가 필요하다. 나는 1992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의 연구 편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일반, 의학학술, 보건의료, 약, 질병, 도교양생 등 단순히 주제별 분류만 했다. 각각 주제에 대해 시기별, 즉 해방 이전, 1946~1960년, 1961~1970년, 1971~1980년, 1981~1991년 등에 어떤 연구가 나왔는지 통계를 간략히 살폈다. 그것을 시기별~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신동원, 1992: 101).

	의학일반	의학학술	보건의료	약	질병	도교양생	계
1945이전	4	13	9	4	2		32
1946~1960	5	7	6	1	5	2	26
1961~1970	2	4	9	3	1	1	20
1971~1980	1	3	11	4	1	2	22
1981~1991	7	4	27	7	6	6	57
계	19	31	62	19	15	11	157

* 내용이 중복된 것도 판을 달리하여 발표시기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르게 분류. 경우에 따라서는 한 논저가 두 분야 이상에 걸쳐 분류되기도 함.

위 표에는 근대 이후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이전의 연구 결

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1981~1991년 보건의료 부문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0여 편이 대체로 근대 이전의 연구 성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중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글이 3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¹⁾, 김두중이 뒤를 이어 11편,²⁾ 손홍렬이 10편,³⁾ 이영택이 4편⁴⁾이다. 그러니까 이 넷의 연구가 양적으로 1991년 이전 한국의학사 근대

- 1) 이를테면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논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三木榮, 「無冤錄について」, 『中外醫事新報』 10-12, 1929; 「新註無冤錄考」, 『中外醫事新報』 9, 1931; 「朝鮮版神應經を通して見日鮮醫學の交渉」, 『中外醫事新報』 10, 1932; 「朝鮮醫籍考」, 『中外醫事新報』, 1932.11~1935.9; 「朝鮮醫籍考補遺記」 1~6, 『中外醫事新報』, 1935.11-1944.2; 「朝鮮種痘史」, 『東京醫事新誌』 5-6, 1935; 「山林經濟考」, 『朝鮮』, 1937.3; 「醫方類聚」, 『朝鮮』, 1937.9; 「朝鮮傳染病史」, 『中外醫事新報』, 1937.1-11; 「朝鮮の裁判醫學」, 『書物同好會會報』 5 ; 「故事撮要に載せられた八道册版中の醫書」, 『書物同好會會報』 19; 「朝鮮醫書誌略解」, 『臨床文化』 11-12, 1942; 「鄉藥集成方考」, 『日本醫學史雜誌』 11-12, 1942; 「鄉藥集成方解免」, 『朝鮮學報』, 1942.1; 「朝鮮梅毒傳來史考」, 『東京醫事新誌』, 1949.5-6; 「安養院藏書中朝鮮醫書」, 『朝鮮學報』, 1951.1; 「李朝におけるコレラ流行」, 『朝鮮學報』, 1953.5;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院圖書刊行會刊, 1956);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55); 「朝鮮醫學教育史」, 『朝鮮學報』, 1959.11; 「朝鮮の道教醫學」, 『朝鮮學報』, 1960.11; 「朝鮮疾病史」, 『日本醫學史雜誌』 復刊1-4; 「朝鮮醫學史及疾病史」(再版) (大阪: 自家出版, 1963); 「日鮮中醫學交流史鳥瞰」, 『朝鮮學報』 21, 1963; 「許浚の傳染病學」, 『朝鮮學報』, 1974; 「朝鮮醫事年表」 (大阪: 思文閣出版, 1985).
- 2) 김두중의 논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표되었다. 金斗鐘, 「韓國醫藥의 鼻祖」, 『朝鮮醫藥報』 1, 1946; 「日本으로 건너갔던 三國時代 醫學」, 『朝鮮醫藥報』 1-3, 1946; 「韓國醫學史(上·中世篇)」 (正音社, 1955); 「우리나라 痘瘡의 流行과 種痘法의 實施」, 『서울大學校論文集』 4, 1956; 「世宗大王의 濟生偉業과 醫學의 自主的 發展」, 서울大學校論文集』 5, 1957;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方醫學의 影響」 (한국학연구소, 1967);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關한 考察」, 『亞細亞女性問題研究』 1, 1962; 「鄉藥救急方」, 『圖書』 5, 1963; 「우리나라의 疾病考」, 『大韓醫學協會誌』 4, 1964; 「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究堂, 1966);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66).
- 3) 孫弘烈, 「朝鮮和時代の 醫療制度 1·2」, 『歷史教育』 30-31, 1982-1983; 「朝鮮和時代の 醫療制度 3」, 『藍史鄭在覺博士稀壽 東洋學論叢』 (동양학논총편찬위원회, 1984); 「韓國古代社會의 醫療制度」, 『清大史林』 4·5합집, 1985; 「朝鮮前期 醫官의 任用과 그 社會的 地位」, 『史叢』 30, 1986; 「朝鮮前期의 醫官과 試取」, 『韓國史學論叢』 (최영희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6); 「韓國醫療制度史研究(古代~朝鮮中期)」, 경희대 박사논문, 1986; 「韓國 中世의 醫療制度 研究」 (修書院, 1988); 「高麗末 鮮初의 醫書의 編纂과 刊行」, 『한국과학사학회지』 11, 1989.
- 4) 李英澤, 「우리나라에 처음 紹介된 西醫說」, 『서울大學校 論文集』(自然科學) 1, 1954; 「近世朝鮮의 法醫學的 裁判과 無冤錄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論文集』(自然科學) 4, 1956; 「우리나라에서 實用되어 온 身體解剖圖」, 『서울大學校論文集』(자연과학) 5, 1957; 「우리나라의 救急治療에 關한 研究: 특히 新撰救急簡易方을 中心으로」, 『서울醫大雜誌』 8-4, 1967. 이외 에도 내 1992년도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영택의 논문은 다수가 더 있다. 주로 질병사 연구 논문들이다. 이영택, 「당뇨병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3-3, 1962; 최진한·이영택, 「우리나라 最古醫書인 鄉藥救急方의 引用文獻에 關한 고찰」, 『중합의학』 9-4, 1964; 이영택, 「우리나라 중두사」, 『대한의학협회지』 8-3, 1965; 이영택, 「우리나라 매독전래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 『최신의학』 18-12, 1975; 이영택, 「우리나라 나병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31-6, 1976; 이영택, 「우리나라 각기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이전 연구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미키 사카에의 모든 작업은 『조선 의서지』(1957)과 『조선의학사급질병사』(1963)에 결집되었고, 김두종과 이영택의 성과 또한 『한국의학사 (전)』(1966)에 편입되었고, 손홍렬의 글 또한 대부분이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연구』에 모아졌으니, 이 네 책이 1990년대 한국 의학사 연구의 핵심을 다 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또한 다른 대다수 연구가 이들의 작업을 요약하거나, 약간 더 부연하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 성과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미키 사카에의 성과는 가장 주목해야 한다.⁵⁾ 그에게 한국의학사를 보는 식민사관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근대 이전 한국의학사를 매우 충실하게 정리했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자료를 정리한 최초의 연구였기 때문에, 특히 제도사 부문에서는 이후의 연구가 모두 이로부터 출발해야만 할 정도였다. 오늘날 한국의학사에 관한 사실과 해석, 평가의 7, 8할 내지 8, 9할 정도는 모두 미키 사카에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교적 대중용으로 씌어진 노정우의 “한국의학사”(盧正祐, 1968)나 허정의 『에세이 의료한국사』(허정, 1992) 등의 상당 내용은 미키 사카에의 책을 재정리한 것이며, 한국의 명저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는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중 많은 부분이 직, 간접적으로 미키 사카에의 저작에 신세를 지고 있다.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힌 근대이전 한국의학사의 저작이지만⁶⁾, 학문적으로 봤을 때 미키 사카에와 비슷한 자료로, 비슷한

35-6, 1978; 이영택, 「우리나라 마진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양의학』 33-6, 1977; 이영택, 「우리나라 두창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양의학』 38-5, 1980; 이영택, 「우리나라 말라리아(학질)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 우리나라 고전 의서를 중심으로」, 『중양의학』 41-5, 1981; 이영택, 「우리나라 천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양의학』 43-5, 1982; 이영택, 「우리나라 적리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양의학』 45-5, 1983; 이영택, 「우리나라 연성하감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양의학』 47-5, 1984.

5) 미키 사카에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신동원,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한국의학사 연구 - 성취와 문제점」, 『역사문화연구(박성래교수 정년기념호)』, 2005; 김호,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연구』」, 『문헌과 해석』 19, 2002; 김호, 「『의사학』자 三木榮의 생애와 조선의학급질병사」, 『의사학』 14-2, 2005.

6)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여인석, 「一山 金斗鍾 선생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7-1, 1998; 박성규·김남일, 「金斗鍾의 上世醫學史 批判」, 『한국의학학회지』 20-1, 2007.

방법과 시각을 써서 정리했지만, 그의 연구 성과가 미키의 것보다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영택의 글은 많지 않지만, 그의 장부도(臟腑圖)에 대한 분석, 법의학에 관한 글, 서양의학 도입에 관한 글, 구급의학에 관한 글은 모두 뛰어난 논문들이다. 각 부분에서 미키 사카에의 분석을 뛰어넘는 질을 보였으나, 그는 한국의학사에 대해 많은 논문을 남기지 않았다.

손흥렬의 논문은 박사논문답게 고려시대 의료제도사에 대한 영역에서는 매우 치밀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미키 사카에의 연구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 이전에 한국의학사 전반을 다룬 논저가 여럿 선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7년 노정우는 일반인이 읽기에 난잡한 『조선의학사급질병사』와 『한국의학사』의 맥락을 쉽게 서술한 통사인 “한국의학사”를 제시했다. 1981년 북한에서는 홍순원이 『조선보건사』란 역작을 내놓았다(홍순원, 1981).⁷⁾ 이 책은 일견해서 볼 때 내적인 의학사 측면보다는 외적인 보건의료사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미키 사카에나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서술은 일관된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고, 시기별로 사료를 정리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조선보건사』는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사회적 토대의 변화에 따른 보건 분야의 변화를 일관되게 설명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도식적 해석이 나타나는 것은 이 책의 큰 단점이기도 하다. 남한에서 정민성은 이 책의 전근대부분만 그대로 옮겨 『우리의약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기도 했다(정민성, 1990).

1992년 이후의 연구는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통 분류에 앞서 한국사 시대별 구분이 필요하며, 각 시대별로 각 주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전문적인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각 시대별 주목할 만한 의학사적 내용을 들어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했다.⁸⁾

7) 남한에서 이 책은 1990년 청년사에서 찍어냈다.

8) 의학사의 흐름으로 시대 구분이 가능할까? 그것도 의학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를 아울러 시대 구분이 가능할까? 한국의학사 통사 집필자는 어느 누구도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없다. 미키 사카에나 김두종은 왕조별, 심지어는 통치 왕별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학사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논문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

- 1) 5세기 이전 :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의 존재와 인삼을 포함한 약에 대한 정보가 보인다.
- 2) 5~10세기 : 전문적인 의료직의 존재, 왕실의 의약 관리, 의학 교육기관, 중국 의서의 수입과 활용, 고유 의서의 편찬, 일본에 의학 전달, 약재의 수입과 수출 등이 보인다.
- 3) 10~14세기 : 대민 의료기구, 국산약을 위주로 한 의학, 송대 의사의 초빙과 의학 교수, 의학 과거 시험, 향약을 비롯한 고유 의서 여러 종의 편찬, 재난 구호 기관, 지방 의료기구와 지방 약재 공납 시스템, 국가의 전염병 대책 등이 보인다.
- 4) 14~17세기 : 동아시아 의학의 정리, 향약 의학의 정리가 보임. 도교적 양생을 중시하는 의학 전통의 등장, 정부와 지방 관청 주도로 수십 종의 중국 의학과 조선 의서의 간행이 보임. 구급·태산·두창·역병에 관한 간편 의서의 등장과 한글판 보급이 보임. 의관직의 중인화, 유의, 의녀의 존재가 보임. 독자적인 외과 전문 의서의 등장이 보인다.
- 5) 17~19세기 : 약재 시장의 형성,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약방이 보임. 명대 의서의 유행과 동의보감에 대한 존숭, 실증적인 의학 연구 태도의 대두, 경험방의 유행, 서양 의학에 대한 관심, 수종의 홍역 의서의 편찬, 한의학에 대한 비판, 인두법의 확산과 우두법의 도입 시도, 조선 통신사를 통한 한·일 의학 교류, 동의보감의 중국, 일본에서의 대유행, 독자적인 침술 의서의 등장, 인삼 재배의 성공과 대량 수출, 고유 의학인 사상의학의 탄생 등이 보인다.

이렇듯 이 글에서는 시기를 다섯으로 구분하고, 1992년도 이후의 연구 성과를 각 시기별로 의료제도, 의학 교육과 영업 등과 관련된 의원직, 의학 학술의 전반적 특징, 의학의 분야별 내용, 도교 양생, 전염병 대응 등에 관한 연구 성과를 모았다.

이상의 내용은 “17세기 이후 의료의 전국적인 보급” 한 가지 현상을 제외하고는, 이미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조선의학사급질병사』에서 다 다룬 것들이다. 또한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

럼 오늘날 볼 때에도 한국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이 두 책이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한국의학사 연구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모두 이 그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앞서도 밝혔듯, 이 논문은 정보의 종합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의학 전통, 의학의 사회사적 연구, 의학과 젠더, 의학과 권력 등 현대 서양의학사 연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구 경향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목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의학사와 과학사 분야에서 나온 것은 다 포괄했지만, 한의학계에서 나온 성과는 『한국의 사학회지』 이외의 것은 거의 포괄하지 않았고, 필자의 정보력의 한계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일반 역사학계에서 나온 논문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차후 더욱 완성된 서지목록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조선 이전의 의학사 연구

1) 한국의학의 기원, 1~5세기

1992년도 이후에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능화의 “조선의약발달사”에서는 이 시기 한민족의 조상과 비슷한 오환족(烏丸族)의 무궤 치료와 함께 침·뜸을 의학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들어, 이 무렵 침·뜸 의학이 한민족에게서도 행해졌을 것이라 추정했다(李能和, 1930). 2004년 나는 “한국의학의 기원”이라는 짧은 글에서 중국 본초서에 등장하는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등에서 생산되는 약의 존재가 나오는 기록에 대해 이미 기원전 전후시기에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미 약재의 공동유통권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신동원, 2004a). 나는 이 사실이 곧 이미 중국에서 형성된 한의약이 인근 지역과 함께 공유해나가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성과 등을 활용한 더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2003~2004년 양정필과 여인석은 고대 인삼의 기원에 대해 그것이 한반도와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삼이 진짜 인삼이며, 고대 중국 의약서에 기록된 다른 지역에서 인삼이라 부른 것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종임을 고증하고자 했다(양정필·여인석, 2003; 양정필·여인석, 2004a).

2) 의학의 제도화, 5~10세기

이 시기에 대한 이현숙의 연구는 독보적이다. 그는 제도의 존재에만 관심을 가진 선행 연구자의 정태적인 태도와 달리, 의학과 의료 행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캐묻는 동태적인 접근 방법을 썼다. 그는 박사논문을 포함한 전후의 논문을 통해서 주로 신라 중기, 즉 5~7세기경의 보건의료, 의학의 성격을 탐구했다. 우선 그는 5세기초 신라의사 김무와 그의 처방인 진명방을 분석함으로써 신라 고유의 전통 처방이 발달했음을 확인했으며(이현숙, 2001), 그후 신라 통일전쟁기에 신라가 나당연합군의 군진 의학을 경험함으로써 의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종전 후 692년에 설립된 신라의학교육기관인 ‘의학’의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의 주도로 시행된 ‘의학’으로 말미암아 신라의 의학은 무의와 승의가 주역으로 활동하던 이전 시기와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파악했다(이현숙, 2002a; 2002b; 2003a; 2003b). 이후 그는 신라 시기 의관이 아닌 민간의 의료인의 존재 확인에 나섰으며, 질병사로 범위를 넓혔다(이현숙, 2005; 2008). 원래 이현숙의 신라 의학사 연구는 신라 하대의 중국 『광리방』 도입에 흥미를 느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이현숙, 2000), 신라 사회에서 국가가 의학지식의 민간 유포를 주도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나말여초 의학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를 천착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학에서 ‘중세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즉 고대의 학과 중세의학을 가르는 틀이 있다면, 자신의 연구 대상이 중세의 것이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의 정체를 탐구에 나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학회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정식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이미 삼국사기의 의약 관계 전반을 분석한 바 있는(여인석·이규창, 1992), 여인석은 삼국시대 불교의학의 모습을 잘 천착했다. 그는 박형우와 함께 원

효의 일서(逸書) 『금광명경(金光明經)』 「제병품(除病品)」에 대한 주석 단편의 흔적을 일본승려의 소 작업안에서 찾아내는 쾌거를 보였다. 원효는 『소문』, 『영추』 등 한의학 전문서적과 전문적인 불교의학을 구사하여 경전을 해석했는데, 이는 현재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여인석은 한의학과 불교의학을 절충한 신라시대의 병인론을 밝혔다(여인석·박형우, 1995). 더 나아가 그는 삼국시대 불교 교학의 일반적인 치병활동에 대해서도 밝혔다(여인석, 1996). 또한 양정필과 함께 의학의 토대인 신라 약재 상황을 인삼을 중심으로 밝혔다(양정필·여인석, 2004b).

한편, 장인성은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인의 질병관과 의료를 천착했다(장인성, 2000). 그는 무속과 한의학이 뒤섞인 고대인의 질병관과 의료를, 선행연구자보다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재구성해냈다.

발해의 의학에 대한 것은 미키 사카에의 연구영역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으로서 이정록·김홍균·유원준 등이 최초로 탐색에 나섰다(이정록·김홍균·유원준, 2006).

3) 의학의 자립화, 10~14세기

1990년대 이후 은근히 연구가 활발한 부분이 고려시대, 즉 10~14세기의 의학 분야였다. 우선 의료제도에 대해서 심화된 연구가 나왔다. 이미숙과 이경록의 두 전문 연구자가 등장하여 손흥렬 이후의 고려시대 의학제도사 연구를 이끌었다. 이미숙은 2001년 고려시대 의관의 임무와 사회적 지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서, 2002년 중앙의관의 직제를 다시 분석했으며, 박사논문에서는 의관을 다른 기술관인 역관과 함께 다루면서 고려시대 기술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이미숙, 2001; 2002a; 2002b). 2001년 이경록은 신동환과 함께 고려시대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성격을 리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려시대 의료제도사 연구에 뛰어들었다(이경록·신동환, 2001). 그는 특히 선행 연구가 미진한 영역이었던 지방의료의 실질적인 운영, 대민의료체계의 의 작동, 구료체제의 실제 작동과 한계 등을 본격적으로 파악해냈다(이경록, 2007a; 2007b; 2008). 이런 성과는 그의 박사논문의 일부분으로 편입되

었다(이경록, 2009). 2007년 신라시대 의학사에서 시대를 넓혀가던 이현숙도 고려시대 의학을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고려시대 관료계 의료와 민간의료에 대해 고찰했다(이현숙, 2007a).

고려의학사에 관한 연구는 실제 의서 분석이 시도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신순식은 1995년 고려 이전의 한의학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며(신순식, 1995), 1996년 송영춘은 원 간섭기의 의학에 대해 탐구했다(송영춘, 1996). 이보다 앞선 1994년 신영일은 현존 고려의서인 『향약구급방』 전문을 교감, 번역, 출처를 확인한 작업을 함으로써 고려 향약 연구의 새 장을 열게 했다(신영일, 1994). 또한 『향약구급방』 연구는 향약 명칭을 통해 우리말 어휘의 역사를 연구하는 국어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은규, 1993; 손병태, 1996). 홍영의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15세기 중간본의 서문만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향약구급방』의 간행 경위에 대해 탐구했다(홍영의, 1997). 2008년 정유용·김홍균은 『향약구급방』의 입·혀·입술·치아 질환에 대해 고찰했다(정유용·김홍균, 2008).

안상우는 『의방유취』 연구 과정에서 실전되었지만, 이 책에 많이 인용되어 있는 고려의서인 『어의촬요방』을 복원하는 한편(안상우·최환수, 2000), 그동안 중국의서로 알려진 『비예백요방』이 고려의서임을 밝혔다(안상우, 2000c). 이로써 겨우 구급방류 의서 1종만 존재하던 고려의학의 분석 대상이 훨씬 포괄적인 의서인 이 두 책으로 넓혀짐에 따라 고려의학의 성격 파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8년 하정용 등의 연구자는 『어의촬요방』 더욱 완벽한 복원을 위해 최중준의 일생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으며(하정용 외, 2008), 이경록은 『향약구급방』, 『어의촬요방』, 『비예백요방』의 내용을 최초로 검토했다. 그는 『어의촬요방』이 향약 위주의 책이 아니라 고위층을 위한 의서였으며, 새로운 의학인 송대 의학을 수용한 의서임을, 이와 달리 『향약구급방』은 민을 위한 의서로서 내용은 당대 의서에 의존한 의서임을, 『비예백요방』은 향약 위주의 의서이면서도 구급방 차원을 넘어선 일반 의서임을 밝혔다(이경록, 2009). 고려 최초의 의서로서 단 한 처방만 남아 있는 『제중입효방』에 대해서는 이덕호·김홍균·안상우 등이 연구했고, 송나라의 요청으로 중국으로

보내진 고려의 『침경』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이덕호·김홍균·안상우, 2008; 眞柳誠, 2003).

고려시대 의료생활사 구축에 관한 연구도 나왔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규보가 남긴 『동국이상국집』에 그의 일생 동안의 의료 생활 기록이 매우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펴낸 『개경의 생활사』에서는 “사나운 질병, 열악한 의술”이라는 절을 두어 개경의 의료생활을 짚막하게 스케치했다(한국역사연구회 편, 2007). 같은 해 신동원은 이규보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일생 동안의 병 앓이와 치료, 그를 진료한 의원들, 그가 개입된 도교, 불교적 전염병 관리, 고려와 송 사이의 의학교류 등을 서로 연관 지어 파악했다(신동원, 2007a).

이태진은 향약의 보급과 관련해서 논쟁적인 책을 발표했다.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이 그것이다(이태진, 2002). 그는 고려 중엽 이후 조선 초반까지 인구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밝히고, 이 시기 향약의 확산이 그러한 증가를 이끈 요인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동원은 의학의 발달을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보는 해석은 심지어 현대의학 발달의 기여 논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신동원, 2002).

새로운 고려시대 의학사 연구 동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부분은 고려시대 전염병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8년에 김남주가 열었다(김남주, 1988). 그는 이 박사논문에서 고려시대 전염병 유행을 개관하면서, 고려인의 재이론적 병인 파악을 밝혔다. 송효정은 12·13세기 특정 시기의 역병 유행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송효정, 2000). 2007년도 『이화사학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전염병 특집호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전쟁과 전염병의 관계를 읽어내고, 전염병 해소를 기원하는 관의 도교적, 불교적 치병의 면모를 상세하게 밝히는 한편, 전염병 치료와 권력 관계에 대해 탐구했다(김순자, 2007; 이정숙, 2007; 김영미, 2007; 이현숙, 2007b). 전염병을 비롯한 일반 질병에 대한 연구 성과도 여러 편 나왔다. 2004년 강도현은 고려말 수입된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질병을 대하는 방식이 불교·도교적인 데서 성리학적인 것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음을 보였고(강도현, 2004), 2006년 박경안은 고

려인의 다양한 질병 금기와 그에 따른 질병 대처에 대해 밝혔다(박경안, 2006). 2007년 이현숙·권복규는 현존 유일 고려 의서인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고려의학의 전반적인 전염병관, 질병관을 분석했다(이현숙·권복규, 2007).

3. 조선 전기의 의학사 연구

조선시대 들어서는 보건의료, 의학 상황이 한결 명료해지고 정연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새 왕조인 조선이 건국하면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제도 정비와 크게 관련이 있다. 또한 현존 자료가 비약적으로 크게 늘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현상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른바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조선 의료제도의 면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미키 사카에, 김두중이 전반적으로 잘 밝혔다. 이어서 손홍렬이 더욱 꼼꼼하게 중앙의료기구, 의원의 지위, 의서편찬 등을 살폈고(孫弘烈 1988; 1989; 1993), 김호 또한 조선 전기의 대민 의료 상황과 의서 편찬을 밝혔다(김호, 1996a). 조선 전·후기를 아우르지만, 1999년 이규근의 중앙의료기구에 관한 연구는 법전에 규정된 제도 탐구를 넘어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실제 운영의 모습을 잡아냈다는 점에서 크게 가치가 있다(이규근, 1996; 1999). 2003년 김성수의 중앙의료기구에 대한 연구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지 않은 각 관청에 설치된 약방의 확대과정을 밝혔다(김성수, 2003). 이 시기 의원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로는 허준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핀 신동원의 책 『조선사람 허준』(신동원, 2001a)과 2002년 박경련의 논문이 있다(박경련, 2002).

이 시기 의녀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 나왔다. 1994년 박선미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의녀제도 설치 동기, 교육, 실제 운영 등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깊게 연구했다(박선미, 1994). 2008년 이민호·안상우는 성종 대 의녀인 장금과 귀금을 중심으로 ‘전문의료’의 활동을 밝혔다(이민호·안상우, 2008).

이 시기에 또한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전통 사회의 의료 윤리에

대한 글들이 몇 편 발표되었다. 2000년 신동원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의사윤리 전반을 검토했으며(신동원, 2000), 2003년 황임경과 황상익은 세조의 「의약론」을 분석했다(황임경·황상익, 2003). 2004년 신동원은 한국 전통의학의 의사윤리와 생명윤리를 검토했으며(신동원, 2004d), 중국학자 施仁潮는 『의방유취』에 담긴 의덕의 성격을 논했다(施仁潮, 2007).

2000년 이후 민간 의약에 대한 실상에 대한 연구는 눈부셨다. 젊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관찬 자료를 넘어 일기를 분석했다. 그들은 이문건의 『목재일기』, 유희춘의 『미암일기』 등에 담긴 풍부한 의약 기사를 분석했다. 1997년 이복규는 목재 이문건(1494-1567)의 일기에 풍부하게 담긴 병앓이 기사를 분석하여 조선전기 무속, 점복, 의학적 치료가 병존하는 조선 전기 환자의 일상의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이복규, 1997). 2000년 김호는 노수신의 병상 기록을 검토했고(김호, 2000b), 2001년 김성수는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분석하여 16세기 전반 향촌의료의 실태와 사족의 대응을 밝혀냈고(김성수, 2001), 같은 해 김호는 『미암일기』 분석을 통해 16세기 후반 서울과 지방의 의약실태를 파악했다(김호, 2001). 2006년 신동원은 『미암일기』, 『쇄미록』의 일기를 분석했고(신동원, 2006a), 2010년 퇴계집의 의약 기사를 분석해 지방의 의료 상황을 파악했다(신동원, 2010). 이들 연구를 통해 서울에는 의원과 약이 흔하지만, 시골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많은 경우 약이 하사나 선물 형태로 거래되었음이 밝혀졌다.

14~17세기는 조선의학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도 1990년대 이후 많은 논저가 쏟아져 나왔다. 그중 많은 것이 『동의보감』에 집중되었다. 1991년 허정은 『동의보감』의 등장 배경, 공동저자, ‘동의’란 명칭의 의의, 이후의 영향 등에 대해 본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허정, 1991). 이후 1999년 신동원·김남일·여인석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축약하는 작업을 통해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동의보감』 전체 구성의 논리와 특징을 밝히는 단초를 열었다(신동원·김남일·여인석, 1999). 2000년 김호는 박사논문에서 『동의보감』의 신체관에 주목하여 그것이 장부, 부인, 소아의 인간 구분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 책이 유·불·선 삼교회통 정신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

다. 또한 김호는 책의 저자인 허준의 출생과 가계, 의학 학습, 입사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연구사상 최초로 제시했다(김호, 2000a). 2001년 신동원은 『동의보감』이 질병보다 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의학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의 구성과 편집체계, 임상 응용의 적정성 등을 이 책이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서로 자리 잡게 된 요인으로 꼽았다(신동원, 2001a). 같은 해 성호준은 『동의보감』의 사상사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이 책의 유가적 성격이 ‘중화(中和)’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책의 도가적, 성격과 유가적 성격의 접합 논리를 찾아내려고 했다(성호준, 2001). 2006년 김성수는 16세기 조선의 열악한 의료의 실태와 선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양생법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양생법을 증시한 요령 있는 의서인 『동의보감』의 편찬 배경으로 파악했다(김성수, 2006a). 이밖에도 『동의보감』 각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일일이 거론치 않겠다.⁹⁾ 『동의보감』 연구의 한의학계의 기여는 한창현·안상우 등의 공동 연구에 총정리 되어 있다.¹⁰⁾

- 9) 김호, 「조선중기 사회와 허준의 『동의보감』」, 『역사비평』 27, 1994; 신동원,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과연 인용문헌을 적은 것인가?」, 『한국보건의사학회지』 3, 1995; 정우열·전병훈·이진홍,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와 허준의 의학사상」, 『동의병리학회지』 10-2, 1996; 김남일,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醫易思想」, 『한국의사학회지』 12-2, 1999; 안상우, 「『동의보감』의 ‘유취’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 정우열, 「『동의보감』의 질병분류에 대한 연구」, 『동의병리학』 13-1-16-2, 1999-2002; 차웅석, 「중국의 『의학입문』이 한국의 『동의보감』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 김대형·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오준호·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鍼灸篇의 醫史學的 考察 - 「內景篇」에 나타난 鍼灸法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7-1, 2003; 이현재·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序」와 「集例」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金南一, 「『東醫寶鑑』と 韓国の 韓醫學」,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오준호·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鍼灸篇의 醫史學的 考察 (2) - 「外形篇」에 나타난 鍼灸法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박성규·김수중·김남일, 「許浚의 自然觀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박성규·차웅석·김남일, 「韓醫學의 人間觀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 10) 한창현·박상영·권오민·안상영·안상우,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동의보감 연구 현황조사」, 『한국한의학』 22-2, 2009. 『동의보감』의 의학이론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목된다. 여인석, 「동의보감에 나타난 기생충 질환」, 『의사학』 2-2, 1993; 김남일, 「『동의보감』의 『소문현기원병식』 五運主病의 운용」,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 이주혜, 「『東醫寶鑑』 雜病篇 [寒]문 傷寒 중 太陽病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 김남일, 「『東醫寶鑑』 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 김의태·김남일,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소진백, 「동

허준의 다른 의서인 『찬도방론맥결집성』,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집요』, 『언해납약증치방』, 『언해두창집요』, 『신찬벽온방』, 『벽역신방』 등의 책에 대해서는 신동원이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허준이 종합의학 뿐만 아니라 기초의학과 대민 의학 전반을 총정리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신동원, 2001a). 이밖에 『찬도방론맥결집성』에 대해서는 허종·안상우의 연구(허종·안상우, 2002), 『언해태산집요』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분석한 정은아·김남일 등의 연구(정은아·김남일, 2002), 『벽역신방』에 대해서는 조원준의 박사논문이 있다(조원준, 2004).

조선 전기의 의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1996년 이후 김호는 『동의보감』이 등장하기까지 『향약집성방』에 대해 연구했고, 그것은 박사논문(김호, 1995; 1999a; 2002b). 2001년 강연석과 안상수는 『향약집성방』에 실린 실전 향약의서의 특징을 분석했고, 이책의 「제해문(諸咳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특징을 추출했고, 이 둘은 2005년 중국본초서인 『경사대전본초』에 실린 향약 본초에 대해서 고찰했다(강연석·안상우, 2002; 2003; 2004). 한편 중국학자도 『향약집성방』의 가치와 특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李志庸·曹云, 2007).

『의방유취』에 대해서는 1999년 신순식의 연구도 있었지만(신순식, 1999), 2000년 안상우의 독보적인 연구가 빛났다. 그의 연구는 『의방유취』의 등장 배경, 편찬과 교정 작업, 학술상의 특징,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활용, 이후 『동의보감』에 끼친 영향 등을 밝힌 사실상 『의방유취』에 관한 첫 본격적인 논문인데, 특히 일본 궁내성 소장 진본 『의방유취』를 국내학자 중 처음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썼다(안상우, 2000b). 이후에도 그는 『의방유취』 추출 실전의

의보감에 보이는 단계담음론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5-1, 2002; 유명숙·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7-1, 2004; 오준호·차웅석·김남일·안상우, 『『東醫寶鑑』 鍼灸法の 選穴方法 高찰』,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정석기·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咳嗽門」의 醫論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朱建平, 『『东医宝鉴』方剂学内容的初步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姜赫俊, 『『东医宝鉴』方剂引文与『千金方』原文的比较分析』,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姜赫俊, 『『东医宝鉴』方剂引文与代表性中医原著比较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 한봉재·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의 望診圖像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

서의 복원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탐구를 계속했다(안상우·최한수, 2001; 안상우, 2001; 김대형·안상우, 2003). 2007년 중국학자의 『의방유취』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盛增秀, 2007a; 2007b). 『의방유취』의 분과학에 관한 연구들도 여럿 나왔다.¹¹⁾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의림촬요』 연구는 김홍균이 열어젖혔다. 그는 2000년 박사논문으로 『의림촬요』의 저자, 판본, 구성, 인용문헌을 검토했으며, 그것이 이전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밝혔는데, 그의 연구를 통해 『동의보감』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는 수확도 있었다(김홍균, 2000a; 2000c; 2000d; 2001). 이밖에 안상우는 『의림촬요』의 주요판본과 국제교류에 대해 살폈고(안상우, 2004), 차웅석, 김남일 등은 『의림촬요』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중국 의서과 이 책의 다른 점, 이 책만의 성취 등을 밝혔다(조선영·차웅석·김남일·유원준, 2006; 김현·김남일, 2008). 이밖에 2004년 김호종은 17세기 전후 대표적인 유의인 유성룡의 의학에 대해 살폈다(김호종, 2004).

이 시기 중국과 조선의 의학 교류에 관한 연구가 몇 편 나왔다. 양영준·안상우는 유명한 명대의서인 공정현의 『만병회춘』의 조선판인 『증보만병회춘』의 내용과 체제에 대해 연구했고(양영준·안상우, 2006), 양영선은 조선의서 『의림촬요』의 내용에 나타난 중국과 조선의학의 교류를 다뤘다(梁永宣, 2007).

조선의 독특한 외과술을 담고 있는 임언국의 『치종지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나왔다. 1996년 신좌섭 등은 일본에 남아 있는 『치종지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치종학 전반을 분석했고, 2001년 이규근은 조선중기 치종술에 대해 다뤘다(신좌섭·기창덕·황상익, 1996; 1998; 이규근, 2001a). 2007년 서지연·김남일은 임언국의 외과 이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서지연·김남일, 2007), 박상영·안상우는 『치종지남』의 여러 판본을 통해

11) 조선영·차웅석·김남일, 「朝鮮 前·中期的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이가은·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의 本草 고찰을 통해 본 朝鮮 前期 小兒醫學」,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김영곤·안상우·김남일, 「『醫方類聚』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의 서지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王英·江凌圳, 「『醫方類聚』對中 醫方劑學的 貢獻」,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竹劍平, 「試論『醫方類聚』採輯養生文獻的特色和價值」,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그것의 전승관계를 따졌다(박상영·안상우, 2008).

구급의학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 1967년 이영택의 구급간이방 연구(이영택, 1967) 이래 한동안 연구가 없다가, 앞에서 언급했듯 1999년 신동원이 허준의 『언해구급방』에 대해 분석했고, 2003년 이상원 등이 재차 한의학적 입장에서 『언해구급방』에 대해 살폈고(이상원·차용석·김남일, 2003), 정순덕 또한 한의학의 입장에서 『구급방』 전반을 고찰했다(정순덕·김남일·차용석, 2008).

법의학에 관한 연구는 1956년 이영택의 조선 전반의 법의학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며, 1996년 법의학자 문국진의 『무원록의 세계』에 대한 번역본이 나왔다(문국진, 1996). 2002년 김호는 조선초 『신주무원록』의 간행과 검시절차에 대해 연구했고, 계속해서 조선 후기의 법의학에 대해 연구했다(김호, 2003a).

양생법에 관한 연구는 의학사 연구자의 연구도 있었지만, 도교연구자, 체육학 연구자 등의 연구도 많았다. 『동의보감』의 도교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연관되어 도교 양생술에 대한 연구가 여럿 있었다. 1990년 손찬식은 『동의보감』 공동편찬자의 1인인 정작의 형이자 『동의보감』에도 인용되어 있는 ‘정북창방’의 저자인 정렴의 내단 사상의 정·기·신론에 대해 고찰했고(손찬식, 1990). 1992년 윤창렬은 한의학과 연관된 도교의학에 대해서 고찰했다(윤창렬, 1992). 김낙필은 1996년 조선시대 정·기·신론의 전개 과정을, 2003년에는 정렴의 내단사상을 깊이 연구했고, 2005년에는 권극중의 내단(內丹) 사상서인 『주역참동계주해』의 내용을 분석했다(김낙필, 1996; 2003; 2005). 한편 손홍렬은 이황이 손수 베낀 명대의 양생 의서인 『활인심방』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선비의 양생관을 고찰했다(손홍렬, 2004). 2005년 김성수는 16~17세기 양생서 편찬의 배경을 탐구했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저작인 정유인의 『이생록』의 내용을 분석했다(김성수, 2005; 2006b).

이 시기 수의학에 대해서는 『신찬집성마의방』의 전체 내용을 독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천명순의 박사 논문이 있었다(Myung Sun Chun, 2003).

조선전기의 역병 유행에 대해서는, 김호가 16세기말-17세기 초 역병 발생

의 추이와 대책을 살폈으며(김호, 1993), 1999년 신동원은 17세기 초 성홍열의 유행과 허준의 대응 의서인 『백역신방』에 대해 다뤘다(신동원, 1999b). 1999년 권복규·황상익이 조선 전기 역병에 관한 민간의 대응을 살폈고(권복규·황상익, 1999; 권복규, 2000). 2001년 권복규는 조선시대 전통의서에 나타난 질병관에 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제출했고, 2009년 정다함은 조선 전기의 의·약의 개념과 치유에 대해 연구했다(권복규, 2001; 정다함, 2009).

4. 조선 후기의 의학사 연구

17세기 이후의 의료는 이전 시기와 다른 모습을 띤다. 또 사료가 훨씬 풍부해지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의료제도, 의원의 지위, 의약 생활사 등에 대해 훨씬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

미키 사카에나 김두종은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 같은 법전 류, 연대기 자료로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의존해서 조선시대의 의료제도를 파악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이전 연구자들이 활용하지 않았던 『육전조례』 같은 법전 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같은 연대기를 이용함으로써 이전보다 관 의료제도를 훨씬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1996년 이후 이규근은 내의원의 실제 운영과 의관, 비의관이면서 왕실 진료에 참가한 의약동참의 활동에 대해 연구했고(이규근, 1997; 1999; 2001b; 2007), 이상협은 동서활인서의 직제와 운영을 연구했다(이상협, 1996). 1998년 김대원은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관직 체계는 단지 행정직 의관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든 의관으로 본 이전 연구의 잘못을 지적했다(김대원, 1998). 이전 시기 연구에는 보이지 않던 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도 두 편 나왔다. 1996년 김호는 정조 대의 의료 정책을, 2007년 김성수는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의료 정책의 성격에 대해 연구했다(김호, 1996b; 김성수, 2003). 이 밖에 김남주는 인조 때 야사 기록인 『응천일록』의 분석을 통해 당시 왕실의 시약청의 배설과 운영에 대해 살폈고(김남주, 1992), 서지연·김남일·안상우는 종기 치료를 위한 왕실내 특별기구인 치종청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밝혔다(서지연·김남일·안상우, 2007).

의원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1990년 허재혜는 18세기 의관의 경제 활동 양상을 탐구했는데, 관의료의 유명무실함과 의관의 치부를 밝혔다(허재혜, 1990). 2003년 이선아는 중국과 조선에서 의원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논했다(이선아, 2003).

이 시기 개별 의원에 대한 전기 또는 그들의 의학을 정리하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연구는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것으로, 의학의 한 주체인 인간으로서 다양한 의원의 삶의 조건과 그들이 펼친 의술을 알게 해주었다. 2002년 진재교는 홍양호의 「의원전(醫員傳)」에 나타난 인물의 유형을 분석했고(진재교, 2002), 2005년 이선아는 고창지역의 의원인 은수룡의 경험 의안을, 2006년 김훈은 인조 때 활약한 침의 이형익의 번침술에 대해 살폈다(김훈, 2005a). 최진우·안상우는 18세기 홍역을 연구한 의원 이현길의 생애와 학술계통을(최진우·안상우, 2006), 2007년 김도훈은 『주춘신방』의 저자인 신만의 삶과 그의 의학을, 신동원은 유의인 정약용의 삶과 의술을(신동원, 2007b), 2008년 허경진은 현재까지 알려진 의원이 남긴 유일한 문집인 『곡청사고』를 통해 의원 이현양의 글쓰기를(허경진, 2008). 권오빈·오준호·차웅석·김남일은 의원 박태원의 삶과 의학을(권오빈·오준호·차웅석·김남일, 2009), 2007년 김양수·안상우는 의관 안산 이씨 집안의 활동을 살폈다(김양수·안상우, 2006). 좀더 포괄적으로 2004년 신동원은 조선 후기 의원의 존재형태 전반에 대해 연구했고(신동원, 2004e), 2007년 김남일은 한국의 유의 전통 전반에 대해 탐구했다(김남일, 2007). 2006년 무렵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의학 인물 데이터 확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이선아는 문집에 포착된 의학인물 연구에서 족보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한편(이선아·안상우, 2006; 이선아, 2007). 안상우 등은 3권의 『역대의학인물열전1·2·3』를 펴냈다(이선아·김남일·김홍균·신동원·유호석·정재서, 2007; 안상우 외, 2008; 2010). 『역대의학인물열전1』에는 허준·정작·양예수·윤지미·이정구 등 『동의보감』 편찬에 관련된 인물 5인이, 『역대의학인물열전2』에는 『향약집성방』 편찬에 관련된 인물인 조준·유효통·박윤덕·권채·변계량 등에 대한 내용이, 『역대의학인물열전3』에서는 향약관련 서적 집필에 관계된 권근, 노중례, 방사량, 서찬, 윤

상, 황자후 등의 전기가 담겨 있다. 한편, 2007년 김호는 조선 전후기의 의학 인물에 대한 짧은 전기를 모아 『조선의 명의들』이라는 책을 펴냈다(김호, 2007). 여기에는 전순의·임언국·허준·허임·유이태·정약용·강명길 등 7인의 의학 인물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 의료제도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약생활사 부분의 성과이다. 1996년 신동원은 조선후기 민간의료의 성장이 조선 후기 의료 변화를 읽어내는 핵심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신동원, 1996), 김대원은 성리학적 교화이념이 의료 확산의 영향을 끼쳤고, 『산림경제』 같은 간편 유서의 유행으로 지방의 의료 확산을 읽어내는 지표라고 보았다(김대원, 1998). 1998년 김호는 유만주의 일기인 『흙영』을 분석해 18세기 조선사회의 의료의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을 밝혀냈다(김호, 1998a). 그는 유만주(1755-1788)라는 한 지식인이 남긴 방대한 일기에 담긴 사대부가의 의약 생활을 분석하여 18세기 후반 서울의 의료상황의 역동성을 밝혔다. 2006년 신동원은 16세기의 일기인 『미암일기』, 『쇄미록』과 18세기 일기인 『이재난고』, 『흙영』을 비교 분석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의 의약 생활을 비교했다(신동원, 2006a). 이 연구에 따르면 의약 모두 거의 없었던 조선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에는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의사(醫者)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약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신동원은 240년 동안 지속된 강릉 약계의 자료 분석을 통해, 강릉지역의 사족이 만든 계 형태의 의료제공이 지역 의료의 환자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가 상업적인 약점이 생기면서 사라지게 된 과정을 밝혔다(신동원, 2006b). 의약의 확대와 관련된 약재 시장의 등장과 변천에 대해서는 1984년 홍순두의 『대구약령시』와 1986년 권병탁의 『약령시연구』 등이 주목된다(홍순두, 1984; 권병탁, 1986a; 1986b). 1990년대 이후 조선 후기 약재의 국제 교류에 관한 연구가 몇 편 나왔는데, 특히 인삼 교역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吳星, 1991; 정성일, 2000).

조선 후기 서양의학 수용에 관한 내용은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조선의학사급질병사』(1950년 등사 초판, 1963년 인쇄판)에서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졌다. 이후 1954년 이영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西醫說”(李英澤, 1954)에서 이익의 『성호사설유선』에 담긴 서양의학 내용을 분석했고, 1966년 김두중은 『한국의학사 전』에서 미키 사카에의 책에 없는 최한기의 의학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조선 후기 서양의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들어 좀더 본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조선후기 저작에 등장하는 서양의학에 관한 정보의 소개에 국한되었다면, 이 시기의 연구는 그 성격에 대한 논의로 심화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학자는 베이커이다. 그(1990년)는 실학자의 각종 저작에 서양의학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익, 박지원, 박제가 등의 ‘실학자’들의 조선의료계 비판과 효과 있는 서양 치료술의 모색, 좀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서 정동유와 정약용의 한의학 이론 자체에 비판을 정리했다(Donald Baker, 1990: 14). 각각의 소재는 거의 모두 선행 연구자들도 봤던 것이지만, 위와 같은 일관된 흐름으로 “실학과 의학”을 정리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단지 의학 분야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존의 실학연구가 내세운 ‘실학의 근대성’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의학 분야에서 찾으려 했다(330쪽). 한편 김대원(1991년)은 정약용의 『의령』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 담긴 서의설과 그에 근거한 한의학 비판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으며(김대원, 1991a), 최근의 논문에서는 정약용의 “서학이 단지 서학이기 때문에 추종한 사대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대원, 2000).

위의 “실학적” 흐름과 다소 이질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한기의 의학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나왔다. 1993년 여인석·노재훈은 최한기의 의학 내용을 깊이 분석하여 최한기가 근거로 삼은 서양 의사 흠슨의 한역서와 최한기의 『신기천첩』에 나타난 차이점을 밝히는 한편, 그 차이가 최한기의 통일된 기학적 의학 체계의 건설에서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여인석·노재훈, 1993: 69-78). 1993년 이현구는 최한기 기학의 전체 체제와 의학의 관련성을 연구했고(이현구, 1993), 1995년 신동원도 최한기의 “기학적 의학의 특성을 논하는 한편, 그의 동서의학에 대한 태도를 논의했다(신동원, 1997). 1999년 김성준은 조선에 전해진 서구 뇌주설(腦主說)에 대한 최한기의 대응을 분석했고, 김성수는 서양의학의 수용에 따른 성호학파의 인체관의 변화를 밝혔다.

2009년 신동원은 17~19세기 서양의학 수입 전반에 대해 다뤘는데, 당시 수입된 서양의학의 범위가 넓지 않고 이해 수준도 높지 않았지만, 그것이 조선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의 관리, 새로운 특효약의 기대감 등 당시 조선 사회의 수요에 따라 취사선택된 것임을 밝혔다(Dongwon Shin, 2009).

이 시기 의학교류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중·한 관계에 대해서는 2000년 박문현이 중국 침구서 『침구집성』이 조선의 침구문헌인 『동의보감』의 침구편과 허입의 『침구경험방』을 집록해 만든 책임을 밝혔다(박문현, 2000a). 중국학자 梁永宣은 17세기 중국 사절단 수행의원으로 참여한 윤지미의 질문과 명 의학자의 대답을 분석한 연구를 내놓았고(梁永宣, 2003), 김남일은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시 조선과 명대 의학 교류의 일 단면을 드러내주었다.¹²⁾ 한·일 교류에 대한 2000년대 전반적인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의학 분야에서도 그것을 다룬 여러 연구가 나왔다. 2004년 차웅석 등은 일본인 유의가 남긴 필담 기록인 『상한의담』을 통해 조선통신사 수행 의관과 일본 의원 사이의 학술적 교류의 내용을 밝혔고, 2007년에는 함정식·차웅석 등이 더욱 포괄적으로 조선통신사 사행원의 한·일 학술 교류를 정리했다(차웅석·김남일·안상우, 2004; 함정식·차웅석·유원준·김남일, 2007). 2008년 김호는 18세기 조선의사와 일본의사의 대답을 분석하여 “옳은 의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의원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잘 드러냈다(김호, 2008a).

조선후기 의학 경향에 전반에 대해서는 2005년 신동원이 “‘힘’을 증시한 의학 경향”으로 정리했고(신동원, 2005b), 2000년 손홍렬은 조선 후기 의서 편찬의 전반을 다뤘다(손홍렬, 2000). 2003년 김남일은 학술적 측면에서 중국 의학의 토착화 과정 전반의 성격을 찾아내고자 하는 한편, 2004년 그것을 한국 한의학의 학술유파의 갈래로 파악해내고자 했다(김남일, 2003; 2004). 2006년 서소영은 박사논문의 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의학의 한국화 과정 전반을 대담하게 그려냈다(So Young Suh, 2006).

조선 후기 의학자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정약용의 『마과회통』과 「의령」이다. 정약용의 저작이 연구자의 관심을 크게 끈 것은 그것이 ‘근대성’을 담

12) 김남일의 윤지미에 대한 연구, 『역대의학인물열전1』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63년 미키 사카에는 정약용의 마과회통에 대해 “계통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편술한”, 조선 마진학의 대성이며, 동아시아 마진서(麻疹書)의 최고봉으로 평가했다(三木榮, 1963a: 228-229). 1980년 홍문화는 “『마과회통』은 중국의 한의학의 추종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자적 체계에 의한 집대성임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홍문화, 1978: 90-91). 1990년 베이커는 “마과회통의 대부분이 다산이 홍역과 천연두의 여러 특징에 관한 상반된 견해들을 참고서적들로부터 발췌하여, 더 단순하고 이론적으로 덜 복잡한 것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소견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제 경험에 의한 경험주의보다 ‘오컴의 면도날(즉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가장 간결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이다”라는 오컴의 경제법칙)의 합리성에 있었다”고 보았다(베이커, 1997: 320). 즉 경험주의적(실학사상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징의 하나)이라기보다 문헌학적이라는 것이었다. 1996년 김호는 마과회통의 저술에서 정약용은 미신적이고 허황된 의론을 배척하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을 종합한 의학가의 모습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김호, 1996c: 183). 2000년 김대원은 『마과회통』이 이전의 마진학을 집대성해놓은 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임상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책이며, “철저하게 문헌에 의존하는 글쓰기와 학문 정신의 결과가 『마과회통』”이라 폄하했다(김대원, 2000: 146). 2007년 신동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그런 방식의 연구방식은 정약용의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증학적 방법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신동원, 2007b). 2008년 가와하라 히데키는 정약용의 『마과회통』을 꼼꼼히 분석해 의학적 특징을 도출하는 한편 그동안 이 책이 과대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가와하라 히데키, 2008). 한편 2006년 최진우·안상우는 이헌길의 마진서의 판본을 비교 고찰했으며(최진우·안상우, 2006), 서봉덕은 박사논문으로 『마과회통』 전체 내용을 일일이 검토했다(서봉덕, 2009). 『의령』에 대해서는 1991년 김대원이 번역하고 분석했고(김대원, 1991b; 1993; 1994), 2003년 서봉덕 등이 의학사상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했다(서봉덕·김남일, 2003).

의학 정책도 그랬지만, 정조 때의 의학이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정조 자체

의 의학에 대해서는, 1999년 김호가 정조가 편찬한 『수민묘전』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강명길의 『제중신편』의 간행을 정조의 의료 정책 속에서 파악했고(김호, 1999b; 1999c), 김선형·김달래는 정조의 의학관을 살폈다(김선형·김달래, 2009). 『제중신편』의 의학적 내용은 주로 지창영이 분석했다. 그는 1999년 『제중신편』에 나타난 의학사상을 탐구했으며(지창영·김남일, 1999), 박사 논문에서 『제중신편』의 체제, 내용, 특징을 분석했고(지창영, 2003), 더 나아가 『제중신편』의 인용방식(지창영, 2008a)과 『동의보감』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지창영, 2008b). 한편 이정화는 『제중신편』 중의 ‘양로’와 ‘약성가’의 성격을 파악했다(이정화, 2009).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과 사상의학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저가 나왔다. 김용옥의 『동의수세보원』 강의는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블랙박스 수준에 있던 사상의학의 실체를 언어로 풀어냈다.¹³⁾ 1991년대 초반 정우열은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에 대해 탐구했다(정우열, 1991; 1994a; 1994b). 1998년 여인석은 이제마의 의학을 일종의 ‘몸의 윤리학’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스피노자의 윤리학과 비교했다(여인석, 1998b). 2002년 김종덕·안상우·이경성은 이제마의 삶과 의학에 대한 평전을 냈고, 이창일은 사상의학의 철학의 핵심을 파악해냈다(김종덕·안상우·이경성, 2002; 이창일, 2003). 2005년 방정균은 이제마의 인성론을 청대 의학자의 인성론과 비교했고, 2009년 박주홍은 그것을 고대 서양의 체질론과 비교 검토했다(방정균, 2003; 박주홍, 2009). 2005년 이경록은 이제마 의학론의 시대적 성격을 밝히고자 했으며, 2006년 신동원은 사상의학이 일제강점기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밝혔다(이경록, 2005; Dongwon Shin, 2006).

침구의학에 관한 여러 논문이 나왔다. 1993년 김달호·김중한은 사암침법의 저작시기와 형성 배경에 대해 연구했고(金達鎬·金重漢, 1993), 2000년 초반 박문현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집중 연구했고(박문현, 2000b; 2002), 2002년 백두현 등은 『침구경험방언해』의 해제와 주해 작업을 했으며(백두현·이미향·

13) 김용옥, 『동의수세보원 강론』, 1993. 이 책은 정식 출간된 것은 아니지만 강의록 형태로 묶여 나왔고, 지금도 웹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송지혜·홍미주, 2002), 김호는 허임의 생애에 대해 고찰했다(김호, 2006b). 2004년 김인숙은 인조의 질병을 치료한 이형익의 번침법을 분석했다(김인숙, 2004). 2008년 한봉재 등은 조선의 경락도에 대해 연구했으며(한봉재·안상우·김남일, 2008), 2009년 오준호 등은 조선 의서에 나타난 침구할 날 선택하는 법을 분석했다(오준호·차웅석·김남일, 2009a; 2009b).

김호는 조선 전기의 연구에 이어 조선 후기 법의학 연구를 계속했다. 1998년 규장각 소장 ‘검안’을 살인 유형별로 분류, 검토했으며, 그것을 통해 100년전 향촌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한편, 2006년 법의학 전반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행본을 냈다(김호, 1998b; 1998c; 2006a). 한편 정일영은 정조대 『심리록』의 자살사건을 남녀별로 분석하여 이 시기 젠더의 문제를 다뤘다(정일영, 2008).

이시기 양생법에 관한 연구는 2002년 이진수의 『한국양생사상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이양편』, 『동의보감』, 『주역참동계연설』, 『보양지』 등 조선 전·후기의 대표적인 양생서 분석을 통해 양생사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했다(이진수, 1999). 한편 2001년 김훈은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온천욕에 대해 연구했고(김훈, 2001), 임진강·김남일은 한국의 추나의학 전반에 대해 고찰했으며(임진강·김남일, 2007), 김호는 조선 왕실의 식이요법 전반을 분석했다(김호, 2008b).

이 시기 치과의학사에 대한 것으로 1995년 기창덕의 『한국치과의학사』가 나왔고, 수의학에 대해서는 2004년 신동원의 『한국마의학사』가 나왔다(기창덕, 1995; 신동원, 2004b).

이밖에 조선후기 의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황도연의 『방약합편』에 대해서는 2001년 이선아·이시형이 연구했고(이선아·이시형, 2001), 18세기 중엽 영조 때 의서인 『급유방』에 대해서는 2002년 조미숙 등이 연구했으며, 2007년 김정선 등은 조선 후기 내의원의 새로운 의학 경향을 연구했고(조미숙·차웅석·김남일, 2002; 김정선·황상익, 2007), 이가은 등은 『승정원일기』의 진료기록을 분석했다(홍세영·차웅석·김남일, 2008). 2005년 김남일은 한국의학사에서 의원의 전문 처방인 의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김

남일, 2005), 현재까지 『민족의학』지에 한국의 독자적인 의안 분석을 연재하고 있다.

본초 또는 약학에 관한 연구는 1980년 홍문화가 『약사산고』에서 일단을 보인 적이 있으며(홍문화, 1975), 1988년 이덕봉은 한국생물학사의 관점에서 본초를 다뤘다(이덕봉, 1985). 2010년 오재근은 조선 의서에 실린 약성가를 전면 분석했다(오재근, 2010).

해부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1957년 이영택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용된 해부도의 내용을 검토했으며(李英澤, 1957), 1992년 여인석 등이 한국 해부의 전반을 고찰했고(여인석·박형우·정인혁, 1992), 2009년 신동원은 조선후기 신체·장부에 관한 담론의 성격 전반을 밝혔다(김성준, 1999; 김성수, 2008; 신동원, 2009; Dongwon Shin, 2010).

출산에 관한 연구도 여러 편 나왔다. 1999년 신동원은 임신 중 여아를 낳아로 바꾸는 비술인 전녀위남법의 시대별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의 가부장제화의 일면을 보였고(신동원, 1999c), 2003년 김호는 조선 왕실에서 잘라낸 태를 관리하는 의식을 밝히는 한편(김호, 2003b), 2004년 조선 후기 왕실의 출산지침서인 『림산예지법』의 내용을 분석했다(김호, 2004).

한국질병사 전반에 관한 것은 미키사카에의 『조선질병사』(1962)였다. 이 책에서는 전염병을 비롯한 주요 질병 전반을 다뤘다. 전염병사 일반에 대해서는 2009년 대한감염병학회에서 펴낸 『한국감염병사』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감염병 전반을 다뤘다(대한감염병학회, 2009). 조선시대 전염병 전반에 대해서는 1984년 변정환의 박사논문이 다뤘고(변정환, 1984), 조선 후기 전염병 유행 기록 전반에 대해서는 2001년 이규근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분석했다(이규근, 2001c). 2001년 신동원은 조선시대의 역병과 방역을 짧게 리뷰했다(신동원, 2001b).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제사인 여제에 대해서는 2000년 이욱이 그것의 대상과 기능에 대해 연구했고, 왈라번은 중국에서의 여제와 조선의 여제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이욱, 2000a; 2000b; B. 왈라번, 2001).

두창에 대해서는 1935년 미키 사카에의 『조선중두사(朝鮮種痘史)』의 본격적인 연구(三木榮, 1935) 이후 1956년 김두종의 중두법에 대한 고찰(김두종,

1956)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1993년 이꽃메는 두창의 유행에 대해 살폈고, 1993년 전중휘는 전날의 마마와 그 예방을 회고했고(전중휘, 1993), 김옥주는 조선말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을 파악했고, 권복규 등은 정약용의 우두법 도입에 미친 천주교 세력의 영향에 대해 살폈고(이꽃메, 1993; 김옥주, 1993; 권복규·황상익, 1999), 신동원은 종두법 전반을 정리했다(신동원, 2003). 홍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정약용의 『마과회통』에 관한 것 이외에 그의 스승인 이헌길의 『마진방』에 대한 연구가 있고(최진우, 2007), 콜레라에 대해서는 1989년 신동원이 조선후기 콜레라 유행을 다뤘다(신동원, 1989). 이부영은 1970년 정신병에 대해 다룬 바 있다(이부영, 1970).

왕들의 사인에 대한 관심도 여러 글로 나타났다. 2001년 윤룡환·윤창렬은 조선중기 왕의 질병과 사인을 연구했으며(윤룡환·윤창렬, 2001), 2004년 김훈은 효종의 사인에 대해(김훈, 2004), 2005년 인조의 질병에 대해 고찰했다(김훈, 2005b). 이보다 앞서 이덕일은 조선 왕들의 독살사건에 대해 다뤘으며(이덕일, 1998) 2002년 강영민은 조선 왕들의 생로병사 전반에 대한 책자를 냈다(강영민, 2002).

5. 에필로그

지금까지 각 시기별로 많은 논저를 살펴봤는데. 1992년 이후 한국의학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도 없지는 않다. 우선 의서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987년 김신근의 『한의약사고』, 1996년 최수한의 『조선의적통고』, 신순식이 편집한 『역대한의학문헌의 고증』,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안상우의 한국 의서 해제 등이 나옴으로써 이전 미키 사카에가 『조선의서지』에서 남긴 업적을 뛰어넘게 되었다.¹⁴⁾ 한국의학사 전반에 대해서는 온전한 통사는 아니지만 한국의학사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대중이 읽기 쉬운 책들이 여럿 선보였다. 1995년 허정은 한국의학사의 흥미로운 토픽을 뽑아 『에세이의

14)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대출판부, 1987);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신순식 편,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1·2』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1997);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안상우는 현재 『민족의학』지에 한국 의서 해제를 계속 연재 중에 있다.

료한국사』를 펴냈으며, 신동원은 1999년 생로병사 문화 전반을 다룬 『조선사람의 생로병사』를 내놓았다(신동원, 1999a). 진정한 의미의 통사로는 1995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의학사의 재정립』(상·하)가 있다. 이 책은 미키 사카에와 김두종의 연구에서 미흡한 한의학적 내용의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신순식 편, 1995). 2004년 신동원은 한국의학사 전반을 사회와 몸, 의료, 의학으로 나눠 살핀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몸과 의학의 한국사』를 펴냈는데, 비록 이 책은 온전한 통사는 아니지만 기존의 의학과 달리 한국 역사 전 시기에 걸쳐 의학과 사회, 의학과 문화, 의학의 근대성 등에 대한 문제를 천착하는 모습을 보였다(신동원, 2004a).¹⁵⁾

이런 통사류가 있다고 해도, 위에서 살핀 연구 성과 전부를 읽어 반영한 통사는 없다. 사실 통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극히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각 분야마다 이제는 미키 사카에와 김두종의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각 시기별로 의학사에 대한 수준 높은 단행본이 나와 있고, 각 주제당 심도 깊은 논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92년까지의 연구 경향과 비교했을 때, 이후의 한국의학사 연구는 주제의 폭도 넓어지고, 파악한 내용도 훨씬 심화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는 미키 사카에와 김두종 양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대의학적 기준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미키 사카에의 저작에서 보이는 조선의학의 중국 추종적 발전이라는 식민사관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학의 자주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또한 의학, 의료의 제도적 규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그것의 역동적인 기능 밝혔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물음에 답하는 형태의 연구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따진다면 그 성과는 아직 많이 미흡한 형편이다. 이를테면, 한국의학의 기원은 어떠하며 한·중·일을 포함한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한국의학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한국의학이 주변의 의학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의학과 의료가 민중의 삶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전

15) 이 책에 대해서는 박윤재의 서평(『의학사, 한국사를 습격하다: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 70, 2005)과 임정혁의 일본과학사학회의 서평(『科學史研究』 46, 2007)이 있다.

통사회에서 의학지식이 어떻게 권력으로 작동했는지, 전통사회에서 의학과 여성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의원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였고 의학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여겨졌는지, 의료인이 아닌 환자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약재의 생산·유통과 활용이 어떠했는지, 역병이 옛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전과 달리, 『의사학』, 『한국의사학회지』 같은 의학사 전문학회지가 있으며, 1992년 이후에 10여인의 박사급 연구 인력이 배출되어 그들이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색인어 : 인삼, 향약, 도교양생법, 동의보감, 의관, 유의, 의녀, 약령시, 사상의학

투고일 2010. 6. 4.	심사일 2010. 6. 17.	게재확정일 2010. 6. 21.
-----------------	------------------	--------------------

참고문헌

- 가와하라 히데키, 「정약용의 과학저작」, 『다산학』 13, 2008.
- 강도현,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과 질병 대처 양상의 변화」,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강연석·안상우, 「『鄕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鄕藥醫學」,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 강연석·안상우, 「『향약집성방』 「諸咳門」에 나타난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16-1, 2003.
- 강연석·안상우,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나타난 鄕藥本草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강영민, 『조선왕들의 생로병사』 (태학사, 2002).
- 권병탁, 『약령시연구』 (한국연구원, 1986a).
- 권병탁, 『대구약령시』 (영남대출판부, 1986b).
- 권복규, 「조선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한국사론』 43, 2000.
- 권복규, 「조선시대 전통의서에 나타난 질병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권복규·황상익, 「조선 전기 역병에 관한 민간의 대응」, 『의사학』 8-1, 1999.
- 권오빈·오준호·차웅석·김남일, 「醫員 朴泰元 인물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
- 金斗鐘, 「韓國醫藥의 鼻祖」, 『朝鮮醫藥報』 1, 1946a.
- 金斗鐘, 「日本으로 건너갔던 三國時代 醫學」, 『朝鮮醫報』 1-3, 1946b.
- 金斗鐘, 『韓國醫學史(上·中世篇)』 (正音社, 1955).
- 金斗鐘, 「우리나라 痘瘡의 流行과 種痘法의 實施」, 『서울大學校論文集』 4, 1956.

- 金斗鐘, 「世宗大王的 濟生偉業과 醫學의 自主的 發展」, 『서울大學校論文集』 5, 1957.
- 金斗鐘,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關한 考察」, 『亞細亞女性問題研究』 1, 1962.
- 金斗鐘, 「鄉藥救急方」, 『圖書』 5, 1963.
- 金斗鐘, 「우리나라의 疾病考」, 『大韓醫學協會誌』 4, 1964.
- 金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究堂, 1966a).
- 金斗鐘,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b).
- 金斗鐘,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方醫學의 影響』 (한국학연구소, 1967).
-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 김낙필, 「조선시대 도교 정·기·신론의 전개 양상」, 『도교의 한국적 변용』 (아세아문화사, 1996).
- 김낙필, 「북창 정립의 내단사상」, 『도교문화연구』 19, 2003.
-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 권극중의 도교 철학적 사유와 그 전개』 (대원출판, 2005).
- 김남일,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본 허준의 醫易思想」, 『한국의사학회지』 12-2, 1999.
- 김남일, 「『동의보감』의 『소문헌기원병식』 五運主病의 운용」,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a.
- 김남일, 「『東醫寶鑑』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b.
- 김남일, 「우리나라 전통의약기술의 중국의학 수입후 토착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6-1, 2003.
- 김남일, 「韓國韓醫學의 學術流派에 關한 試論」,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김남일, 「韓國醫學史에서의 醫案研究의 必要性和 意義」,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김남일, 「韓國에서의 儒醫들의 活動 -醫書의 編纂. 治療活動을 中心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김남주, 「고려시대에 유행된 전염병의 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김남주, 「朝鮮後期 宮안의 醫療狀況」, 『한국보건사학회지』 2-1, 1992.
- 金達鎬·金重漢, 「舍巖鍼法の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7, 1993.
- 김대원, 「정약용의 『의령』」,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a.
- 김대원, 「『의령』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의’ 에 대한 태도」, 『한국과학사학회지』 13-1, 1991b.
- 김대원, 「정약용의 의령1」, 『한국과학사학회지』 15-2, 1993.
- 김대원, 「정약용의 의령2」, 『한국과학사학회지』 16-1, 1994.
- 김대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한국사론』 39, 1998.
- 김대원, 「정약용의 의학론」, 『과학사상』 33, 2000.
- 김대원·안상우, 「『의방유취』에 인용된 ‘오장육부도’ 의 저자와 편제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6-1, 2003.
- 김대형·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 김두중, 「우리나라 두창의 유행과 중두법의 실시」,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학 4), 1956.
- 김선형·김달래, 「정조의 의학관」, 『의사학』 18-2, 2009.
- 김성수, 「16세기 향촌의료 실태와 사족의 대응」, 『한국사연구』 113, 2001.
- 김성수, 「16·17세기 중앙의료기구의 운영실태」, 『서울학연구』 20, 2003.
- 김성수, 「16~17세기 양생서 편찬과 그 배경」, 『한국사상사학』 24, 2005.
- 김성수, 「조선시대 의료체계와 『동의보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a.
- 김성수, 「정유인의 『이생록』 연구」, 『경희사학』 24, 2006b.
- 김성수, 「조선후기 서양의학의 수용과 인체관의 변화 - 성호학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31, 2008.

- 김성준, 「18·19세기 조선에 전해진 서구 뇌주설과 해강 최한기의 대응」,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순자, 「고려시대의 전쟁, 전염병과 인구」, 『이화사학연구』 34, 2007.
-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대출판부, 1987).
- 김양수·안상우,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동방학지』 136, 2006.
- 김영곤·안상우·김남일, 「『醫方類聚』에 인용된 『理傷續斷方』의 서지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 김영미, 「고려시대 불교와 전염병 치유문화」, 『이화사학연구』 34, 2007.
-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의사학』 2-1, 1993.
- 김용욱, 『동의수세보원 강론』, 1993.
- 김의태·김남일, 「『東醫實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의사학』 13-2, 2004.
- 김정선·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16-2, 2007.
- 김중덕·안상우·이경성, 『이제마평전』 (KBS, 2002).
- 김현·김남일, 「‘쑤’ 卦의 활용을 중심으로 본 『醫林撮要』 속의 易學思想 - 『醫學正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 김호, 「16세기 말 17세기 초 ‘疫病’ 발생의 추이와 대책」, 『한국학보』 71, 1993.
- 김호, 「조선중기 사회와 허준의 『동의보감』」, 『역사비평』 27, 1994.
- 김호, 「『향약집성방』에서 『동의보감』으로」, 『한국사시민강좌16』 (일조각, 1995).
- 김호, 「조선전기 대민 의료와 의서 편찬」, 『국사관논총』 68, 1996a.
- 김호, 「정조대의 의료정책」, 『한국학보』 82, 1996b.
- 김호, 「조선후기 ‘두진’ 연구 - 마과회통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7, 1996c.
-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위생과 의료-『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1998a.
- 김호, 「규장각 소장 ‘검안’ 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1998b.
- 김호, 「검안을 통해 본 100년전의 향촌사회(1~3)」, 『문헌과 해석』 3-5, 1998c.
- 김호, 「어말 선초 ‘향약론’ 의 형성과 『향약집성방』」, 『진단학보』 87, 1999a.
- 김호, 「정조 찬 수민요전」, 『문헌과 해석』 8, 1999b.
-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과 『제중신편』의 간행」, 『한국의사학회지』 12-2, 1999c.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조각, 2000a).
- 김호, 「蘇齋 盧守愼의 病床 기록 『政廳日記』」, 『문헌과해석』 13, 2000b.
- 김호, 「16세기 후반 경·향의 의료환경: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64, 2001.
- 김호,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연구』」, 『문헌과 해석』 19, 2002a.
- 김호, 「허준 - 향약의 전통 위에 조선의학 집대성」, 『한국사시민강좌30』 (일조각, 2002b).
- 김호, 「『신주무원록』과 조선전기의 검시」, 『법사학연구』 27, 2003a.
- 김호, 「조선 왕실의 藏胎의식과 관련 의례」, 『한국학보』 111, 2003b.
- 김호, 「조선 후기 왕실의 출산지침서: 립산예지법」, 『의사학』 13-2, 2004.
- 김호, 「『의사학』자 三木榮의 생애와 조선의학급질병사」, 『의사학』 14-2, 2005.
- 김호, 『원통함이 없게 하라 - 조선의 법의학과 『무원록』의 세계』 (웅진씽크빅, 2006a).
- 김호, 「침구경험방: 조선 침구전문서의 효시」, 허임기념사업회, 2006b.
- 김호, 『조선의 명의학』 (살림, 2007).
- 김호, 「조선후기 통신사와 한일 의학교류」, 『조선통신사연구』 6, 2008a.
- 김호, 「조선의 食治 전통과 王室의 食治 음식」, 『조선시대사학보』 45, 2008b.
- 김호중, 「서해 유성룡의 의학 분야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론집』 33, 2004.

- 김홍균,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의 비교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a.
- 김홍균, 『의림촬요』의 「脇痛門」에 관한 小考,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b.
- 김홍균,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c.
-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 저자·판본·구성. 인용문헌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00d.
- 김홍균, 『藥集集成方』과 『醫林撮要』의 比較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4-2, 2001.
- 김훈, 「朝鮮時代 임금들의 溫泉浴과 疾病」,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 김훈, 「朝鮮時代 孝宗의 질병 및 死因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김훈,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과 李馨益의 燻鍼術」,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a.
- 김훈, 「朝鮮時代 仁祖의 疾病에 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b.
- 盧正祐, 「韓國醫學史」. 『韓國文化史大系 3 科學技術』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68).
- 대한감염병학회, 『한국감염병사』 (아카데미아, 2009).
- 문국진, 『고금무원록』 (고려의학, 1996).
- 박경련, 「조선시대의 의원 및 의업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소고: 허준의 경우를 예로 하여」, 『의사학』 11-1, 2002.
- 박경안, 「고려인들의 다양한 금기와 질병을 대하는 태도」, 『역사와 현실』 59, 2006.
- 박문현, 「조선의 두 침구문헌을 집록한 『침구집성』의 실상」,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a.
-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b.
-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5-1, 2002.
-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의 여러판본을 통해 살펴본傳存 경위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 박선미, 「조선시대 의녀교육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성규·김남일, 「金斗鍾의 上世醫學史 批判」,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 박성규·김수중·김남일, 「許浚의 自然觀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박성규·차웅석·김남일, 「韓醫學의 人間觀 -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 박윤재, 「의학사, 한국사를 습격하다: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 70, 2005
- 박주홍, 「고대 서양의학 체질론과 사상체질론의 형성과정 및 내용 비교 연구」, 『의사학』 18-1, 2009.
- 방정균, 「동무와 청대의 인성론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16-1, 2003.
- 백두현·이미향·송지혜·홍미주, 「자료소개: 『침구경험방언해』의 해제와 주해」, 『영남학』 2002-2, 2002.
- 베이커, 「정약용의 의학과 서양의학」,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조각, 1997).
- 변정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질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4.
-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서봉덕·김남일, 「醫零으로 본 정약용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16-2, 2003.
- 서지연·김남일, 「任彦國의 의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 - 『治腫秘方』과 『醫林撮要』, 『東醫寶鑑』, 『田園必考』, 『鍼灸經驗方』, 『宜彙』, 『治瘡方』, 『鍼灸集成』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서지연·김남일·안상우, 「治腫廳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 성호준, 「『동의보감』의 철학적 연구: 유학과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 2001.
- 손진백, 「동의보감에 보이는 단계담음론의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5-1, 2002.
- 손병태, 「향약 약재명의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손찬식, 「북창 정엄 연구 -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9, 1990.
- 孫弘烈, 『朝鮮時代의 醫療制度 1·2』, 『歷史教育』 30-31, 1982-1983.
- 孫弘烈, 「朝鮮時代의 醫療制度 3」, 『藍史鄭在覺博士稀壽 東洋學論叢』 (동양학논총편찬위원회, 1984).
- 孫弘烈, 「韓國古代社會의 醫療制度」, 『清大史林』 4·5합집, 1985.
- 孫弘烈, 「韓國醫療制度史研究(古代~朝鮮中期)」, 경희대 박사논문, 1986a.
- 孫弘烈, 「朝鮮前期 醫官의 任用과 그 社會의 地位」, 『史叢』 30, 1986c.
- 孫弘烈, 「朝鮮前期의 醫官과 試取」, 『韓國史學論叢』 (최영희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6b).
- 孫弘烈, 『韓國 中世의 醫療制度 研究』 (修書院, 1988).
- 孫弘烈, 「高麗末 鮮初의 醫書의 編纂과 刊行」, 『한국과학사학회지』 11, 1989.
- 孫弘烈, 「조선 중기의 의료제도 - 의료제도의 변천과 의서의 편찬·간행 및 대외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15-1, 1993.
- 손흥렬, 「조선후기의 의서편찬」, 『충북사학』 11~12, 2000.
- 손흥렬, 「조선시대 선비의 양생관과 퇴계 『활인심방』」, 『백산학보』 70, 2004.
- 송영춘, 「원 간섭기의 자연과학 - 의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1, 1996.
- 송효정, 「고려시대 역병에 대한 연구 - 12·13세기를 중심으로」, 『명지사론』 11·12, 2000.
- 신동원, 「조선말 콜레라의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9-1, 1989.
- 신동원, 「한국 보건의료사 연구 동향」, 『한국보건사학회지』 2-1, 1992.
- 신동원,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은 과연 인용문헌을 적은 것인가?」, 『한국보건사학회지』 3, 1995.
- 신동원, 「한국근대 보건의료체계의 형성, 1876~1910」,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신동원, 「최한기의 기학과 의학」, 『제3의학』 2-1, 1997.
- 신동원, 『조선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a).
- 신동원, 「허준의 성홍열 연구-동아시아 최초의 보고서」, 『한국과학사학회지』 21-1, 1999b.
- 신동원, 「轉女爲男法の 고고학」, 『역사민속학』 9, 1999c.
- 신동원, 「한국 의료윤리의 역사적 고찰」, 『의사학』 9-2, 2000.
-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a).
- 신동원, 「조선시대의 역병과 방역」, 『전통과현대』 17, 2001b.
- 신동원, 「향약의술이 인구를 증가시켰을까」, 『역사비평』 61, 2002.
- 신동원, 「한국 증두법의 역사」, 『한국문화사상사대계 3』 (영남대출판부, 2003).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a).
- 신동원, 『한국마의학사』 (한국마사박물관, 2004b).
- 신동원, 「한국의학은 중국의학의 아류인가」,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 몸과 의학의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4c).
- 신동원, 「한국 전통의학의 의학윤리와 생명윤리 - 조선시대 의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5, 2004d.
- 신동원, 「조선 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6-2, 2004e.
- 신동원,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한국의학사 연구 - 성취와 문제점」, 『역사문화연구』(박성래 교수 정년기념호), 2005a.
- 신동원, 「조선후기의 의학과 실학」, 『韓國實學思想研究』 (연세대국학연구원 편, 2005b).

- 신동원, 「조선후기 의학 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미암일기』·『쇄미록』·『이재난고』·『흙영』의 비교 분석」, 『역사비평』 75, 2006a.
-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2006b.
- 신동원, 「의학과 의술로 본 이규보(1168-1241)의 시대 - 고려시대 의료 생활사의 모색」, 『2007년 전국역사학대회 과학사분과 발표자료집』, 2007a; 한국과학사학회 홈페이지 자료실(www.khss.or.kr).
- 신동원, 「『儒醫의 길 - 정약용의 의학과 의술』, 『다산학』 10, 2007b.
- 신동원, 「조선후기 신체·장부에 관한 담론의 성격」,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태학사, 2009).
- 신동원, 「이항의 의술과 퇴계 시대의 의학」, 『퇴계학연구』 20, 2010.
- 신동원·김남일·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1999).
- 신순식, 「고려시대 이전의 한의학 문헌에 관한 연구」, 『의사학』 4-1, 1995.
- 신순식, 「『의방유취』의 편찬인물」, 『의사학』 8-2, 1999.
- 신순식 편, 『한국의학사의 재정립상·하』, (한국한의학연구원, 1995).
- 신순식 편,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1·2』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1997).
- 신영일, 「『향약구급방』의 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신좌섭·기창덕·황상익, 「조선시대 치중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중전문서의 내용 분석(1)」, 『의사학』 6-2, 1996.
- 신좌섭·기창덕·황상익, 「조선시대 치중학에 관하여: 그 발전배경과 치중전문서의 내용 분석(2)」, 『의사학』 7-1, 1998.
-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a).
-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b.
- 안상우, 「고려의서 『비에백요방』의 고증 - 실전의서의 복원 I」,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c.
- 안상우, 「『동의보감』의 ‘유취’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c.
-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d.
- 안상우, 「『醫方類聚』의 編纂과 朝鮮前期 醫書」, 『한국의사학회지』 14-2, 2001.
- 안상우, 「『醫林撮要』의 주요판본과 고대의학교류」,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 안상우 외, 『역대의학인물열전3』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 안상우·최환수, 『어의촬요연구 - 실전의서 복원총서 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0).
- 안상우·최환수, 「『醫方類聚』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 양영준·안상우, 「朝鮮醫書『增補萬病回春』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9-2, 2006.
- 양정필·여인석, 「‘중국인삼’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사학』 12-2, 2003.
- 양정필·여인석, 「‘조선인삼’의 기원에 대하여」, 『의사학』 13-1, 2004a.
- 양정필·여인석, 「삼국-통일신라기 인삼의 생산과 대외교역」, 『의사학』 13-2, 2004b.
- 여인석, 「동의보감에 나타난 기생충 질환」, 『의사학』 2-2, 1993.
- 여인석, 「삼국시대의 불교교학과 치병활동의 관계」, 『의사학』 5-2, 1996.
- 여인석, 「一山 金斗鐘 선생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7-1, 1998a.
- 여인석, 「몸의 윤리학: 스피노자와 이제마에 있어 몸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의사학』 7-2, 1998b.
- 여인석·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2-1, 1993.
- 여인석·박형우,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원효의 경우」, 『의사학』 4-2, 1995.
- 여인석·박형우·정인혁, 「우리나라 해부의 역사」, 『대한해부학회지』 25-2, 1992.

- 여인석·이규창, 「삼국사기에 나타난 의학 관련 기사의 분석」, 『의사학』 1-1, 1992.
- 윤희, 「19世紀 韓日兩國의 傳統社會와 外來文化」,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 한일합동학회, 1991.
- 오재근, 「조선 의서 수재 약성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오준호·차웅석·김남일, 「『東醫實鑑』 鍼灸篇의 醫史學的 考察 - 「內景篇」에 나타난 鍼灸法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7-1, 2003.
- 오준호·차웅석·김남일, 「『東醫實鑑』 鍼灸篇의 醫史學的 考察(2) - 「外形篇」에 나타난 鍼灸法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오준호·차웅석·김남일,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鍼灸擇日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a.
- 오준호·차웅석·김남일, 「醫書에 나타난 朝鮮 鍼灸擇日法의 발전과정」, 『한국의사학회지』 22-2, 2009b.
- 오준호·차웅석·김남일·안상우, 「『東醫實鑑』 鍼灸法의 選穴方法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유명숙·차웅석·김남일, 「『東醫實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7-1, 2004.
- 윤용환·윤창렬,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 윤창렬, 「도교의학에 관한 연구 - 한의학과 연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대한원전사의학회지』 6, 1992.
- 이가은·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童秘要』의 本草 고찰을 통해 본 朝鮮 前期 小兒醫學」,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 이경록, 「이제마의 의학과 그 시대적 성격」, 『의사학』 14-2, 2005.
- 이경록, 「조선전기의 지방의료제도」, 『의사학』 16-2, 2007a.
- 이경록, 「고려 전기의 대민의료체계」, 『한국사연구』 139, 2007b.
- 이경록, 「고려초기 구료제도의 형성 - 광증대와 성증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1, 2008.
- 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경록·신동환, 「고려시대의 의료제도와 그 성격」, 『의사학』 10-2, 2001.
- 이규근, 「조선시대 내의원에 관한 연구 - 직제변천과 기능을 중심으로」, 『박물관보』 9, 1996.
- 이규근,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 연구 - 『내의원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 1997.
-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 의관 - 중앙의료기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04, 1999.
-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 『장서각』 6, 2001a.
- 이규근, 「조선후기 의약동참 연구 - 「의약동참선생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9, 2001b.
- 이규근, 「조선시대 후기 疾病史 연구: 『朝鮮王朝實錄』의 전염병 발생 기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96, 2001c.
-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꽃매,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15-2, 1993.
- 李能和, 「朝鮮醫藥發達史」 『朝鮮』 1-7, 1930.
- 이덕봉, 「한국생물학사」, 『한국과학기술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5).
-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푸른역사, 1998).
- 이덕호·김홍균·안상우, 「『濟衆立效方』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 - 交效散을 중심으로」, 『한국의사

- 학회지』 21-2, 2008.
- 이미숙, 「高麗時代 醫官의 임무와 사회적 지위」, 『호서사학』 31, 2001.
- 이미숙, 「高麗時代 技術官 연구 - 醫官과 曆官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a.
- 이미숙, 「高麗 中央醫官의 職制」, 『백산학보』 63, 2002b.
- 이민호·안상우, 「朝鮮前期의 ‘專門醫女’ 에 관한 연구 - 成宗代의 醫女 長德과 貴今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 이복규,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은지학회, 1997).
- 이부영, 「한국 민간의 정신병관과 그 치료: 무속사회의 정신병관」, 『신경정신의학』 9, 1970.
- 이상원·차응석·김남일, 「허준의 『診解救急方』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6-2, 2003.
- 이상협, 「조선시대 동·서할인서에 대한 고찰」, 『향토서술』 56, 1996.
- 이선아, 「한·중 양국의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의원의 사회적 지위」, 『한국의사학회지』 16-1, 2003.
- 이선아, 「의학인물 연구에 있어서 족보의 필요성」,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이선아·김남일·김홍균·신동원·유호석·정재서, 『역대의학인물열전1』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이선아·안상우, 「개인 文集을 통해서 본 醫學人物의 行蹟」,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 이선아·이시형, 「黃道淵의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11-1, 2001.
- 李英澤, 「우리나라에 처음 紹介된 西醫說」, 『서울大學校 論文集』(自然科學) 1, 1954.
- 李英澤, 「近世 朝鮮의 法醫學의 裁判과 無冤錄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論文集』(自然科學) 4, 1956.
- 李英澤, 「우리나라에서 實用되어 온 身體解剖圖」, 『서울大學校論文集』(자연과학) 5, 1957.
- 이영택, 「당뇨병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3-3, 1962.
- 이영택, 「우리나라 증두사」, 『대한의학협회지』 8-3, 1965.
- 이영택, 「우리나라의 救急治療에 關한 연구: 특히 新撰救急簡易方을 中心으로」, 『서울醫大雜誌』 8-4, 1967.
- 이영택, 「우리나라 매독전래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 『최신의학』 18-12, 1975.
- 이영택, 「우리나라 나병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31-6, 1976.
- 이영택, 「우리나라 마진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33-6, 1977.
- 이영택, 「우리나라 각기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35-6, 1978.
- 이영택, 「우리나라 두창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38-5, 1980.
- 이영택, 「우리나라 말라리아(학질)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우리나라 고전의서를 중심으로-」, 『중앙의학』 41-5, 1981.
- 이영택, 「우리나라 천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43-5, 1982.
- 이영택, 「우리나라 적리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45-5, 1983.
- 이영택, 「우리나라 연성하감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중앙의학』 47-5, 1984.
- 이욱,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역사민속학』 9-1, 2000a.
- 이욱, 「조선시대 국가 사전과 여제, 종교연구」 19, 2000b.
- 이은규, 『『향약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정록·김홍균·유원준, 「渤海醫學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 이정숙, 「고려시대 전염병과 치병의례」, 『이화사학연구』 34, 2007.
- 이정화, 「『濟衆新編』의 「養老」와 「藥性歌」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2, 2009.
- 이주혜, 「『東醫實鑑』 雜病篇 [寒]문 傷寒 中 太陽病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3-2, 2000.
- 이진수, 『한국 양생사상 연구』 (한양대출판부, 1999).

- 이창일, 『사상의학 몸의 철학 마음의 건강』 (책세상, 2003).
-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태학사, 2002).
- 이혁재·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序」와 「集例」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이현구, 「崔漢綺 氣學의 成立과 體系에 關한 研究 : 西洋 近代科學의 流入과 朝鮮後期 儒學의 變容」,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이현숙, 「신라 애장왕대 唐 의학서·廣利方·의 도입으로 본 신라 하대의 의학(1) - 劉禹錫의 「對淮南杜相公論新羅講廣利方·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13-14, 2000.
- 이현숙, 「5세기 초 신라의사 김무와 의학의 발전」, 『사상과문화』14, 2001.
- 이현숙, 「신라의학사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2a.
- 이현숙, 「신라중대 의료관료의 역할과 지위변화」, 『사학연구』 68, 2002b.
-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a.
- 이현숙, 「신라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역사와 현실』 48, 2003b.
- 이현숙, 「신라의 민간 의료인」, 『신라사학보』 4, 2005.
- 이현숙, 「고려시대 관료제하의 의료와 민간의료」, 『동방학지』 139, 2007a.
- 이현숙, 「전염병, 치료, 권력: 고려 전염병의 유행과 치료」, 『이화사학연구』 34, 2007b.
- 이현숙, 「김유신의 풍병과 신라 통일전쟁기의 질병」, 『신라사학보』 12, 2008.
- 이현숙·권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 -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2007.
- 임진강·김남일, 「한국 전통추나의학에 대한 의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장인성,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 전중휘, 「전날의 마마와 그 예방」, 『의사학』 2-2, 1993.
- 정다함, 「조선전기의 정치적·종교적 질병관. 의·약의 개념. 범주, 그리고 치유방식」, 『한국사연구』 146, 2009.
- 정민성, 『우리의약의 역사』 (학민사, 1990).
- 정석기·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 「咳嗽門」의 醫論에 대한 의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정순덕·김남일·차웅석, 「의사학적으로 살펴본 『救急方』」,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 정우열, 「동무 이제마의 의학사상」, 『원광한의학』 1-1, 1991.
- 정우열, 「동무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 『동의병리학회지』 9, 1994a.
- 정우열, 「동무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2」, 『의사학』 3-2, 1994b.
- 정우열, 「『동의보감』의 질병분류에 대한 연구」, 『동의병리학』 13-1~16-2, 1999~2002.
- 정우열·전병훈·이진홍,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와 허준의 의학사상」, 『동의병리학회지』 10-2, 1996.
- 정유웅·김홍균, 「『鄕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 정은아·김남일,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 정일영, 「조선 후기 성별에 따른 자살의 해석 - 정조대 『심리록』의 자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7-2, 2008.
- 조미숙·차웅석·김남일, 「『급유방』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 조선영·차웅석·김남일, 「朝鮮 前·中期의 消渴 인식에 관한 연구 - 『醫方類聚』 및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조선영·차웅석·김남일·유원준, 「『醫林撮要 - 三消門』의 의학적 성취」,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 조원준, 「17세기 초 조선에서 유행한 ‘당독역’에 대한 연구: 허준의 『백역신방』을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논문, 2004.
-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박사논문, 2003.
- 지창영, 「『濟衆新編』의 인용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a.
- 지창영, 「『제중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b.
- 지창영·김남일, 「『제중신편』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한국의사학회지』 12-2, 1999.
- 眞柳誠, 「『靈樞』와 高麗에 있던 『鍼經』의 비교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6-2, 2003.
- 진재교, 「이계 홍양호의 의원전(醫員傳)에 나타난 인물 형상」, 『민족문화사연구』 21, 2002.
- 차웅석, 「중국의 『의학입문』이 한국의 『동의보감』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13-1, 2000.
- 차웅석·김남일·안상우,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최진우, 「夢叟 李獻吉의 마진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진우·안상우, 「夢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 계통」, 『한국의사학회지』 19-1, 2006.
- 최진우·안상우, 「夢叟 李獻吉의 麻疹書 판본 비교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9-2, 2006.
- 최진한·이영택, 「우리나라 最古醫書인 鄉藥救急方의 引用文獻에 관한 고찰」, 『종합의학』 9-4, 1964.
- 하정용 외, 「최중준의 연표 작성을 위한 역사적 고찰 - 『어의촬요방』의 복원을 위한 선행과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4-3, 2008.
- 한국역사연구회편, 『개경생활사연구』 (휴머니스트, 2007).
- 한봉재·안상우·김남일, 「조선시대 經絡圖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1-2, 2008.
- 한봉재·차웅석·김남일, 「『東醫寶鑑』의 望診圖像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
- 한창현·박상영·권오민·안상영·안상우,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동의보감 연구 현황조사」, 『한국한의학』 22-2, 2009.
- 함정식·차웅석·유원준·김남일, 「조선통신사 사행원과 기록 연구 -18세기 사행록과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 2007.
- 허경진, 「『국청사고』를 통해본 의원 이현양의 글쓰기」, 『의사학』 17-2, 2008.
- 허재혜, 「18세기 의관의 경제적 활동양상」, 『한국사연구』 17, 1990.
- 허정, 「『동의보감』의 보건사적 연구」, 『한국보건사학회지』 2-1, 1991.
- 허정, 『에세이 의료한국사』 (한울, 1992).
- 허중·안상우, 「『纂圖方論脈訣集成』 편찬과 朝鮮中期의 脈學의 成就」, 『한국의사학회지』 15-2, 2002.
- 홍문화, 『藥史散攷』 (동명사, 1975).
- 홍문화, 「의·약학자로서의 다산과 사상과 업적」, 『다산학보』 1, 1978.
- 홍세영·차웅석·김남일,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 홍순두, 『대구약령시』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1984).
-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홍영의, 「고려후기 대장도감간 『향약구급방』의 간행경위와 자료성격」,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1997).
-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12-2, 2003.
- B. 왈라번, 「조선시대 여제의 기능과 의식」, 『동양학』 31, 2001.
- 姜赫俊, 「『东医宝鉴』方剂引文与『千金方』原文的比较分析」, 『한국의사학회지』 21-1, 2008.
- 姜赫俊, 「『东医宝鉴』方剂引文与代表性中医原著比较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2-1, 2009.

- 梁永宣, 「十七世紀中國與朝鮮醫學交流史實見證」, 『한국의사학회지』 16-2, 2003.
- 梁永宣, 「朝鮮『医林撮要』及其所載中朝醫學交流史料的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李志庸·曹云, 「略述『乡药集成方』价值与特色」,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盛增秀, 「试论『医方类聚』的编纂特点」,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a.
- 盛增秀, 「中韩日朝传统医学交流中的丰硕成果 - 写在『医方类聚』及中韩传统医学文献研究研讨会即将召开之际」,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b.
- 施仁潮, 「精诚习业 乃为大医 - 从『医方类聚』看一脉相承的中医医德观」,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王英·江凌圳, 「『医方类聚』对中医方剂学的贡献」,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朱建平, 「『东医宝鉴』方剂学内容的初步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竹剑平, 「试论『医方类聚』采辑养生文献的特色和价值」, 『한국의사학회지』 20-2, 2007.
- 金南一, 「『東医宝鑑』と 韓国の 韓医学」, 『한국의사학회지』 17-2, 2004.
- 三木榮, 「無冤錄に ついて」, 『中外醫事新報』 10-12, 1929.
- 三木榮, 「新註無冤錄考」, 『中外醫事新報』 9, 1931.
- 三木榮, 「朝鮮版神應經を通して見日鮮醫學の交渉」, 『中外醫事新報』 10, 1932.
- 三木榮, 「朝鮮醫籍考」, 『中外醫事新報』, 1932.11~1935.9.
- 三木榮, 「朝鮮醫籍考補遺記」 1~6, 『中外醫事新報』 1935.11~1944.2.
- 三木榮, 「朝鮮種痘史」, 『東京醫事新誌』 5-6, 1935.
- 三木榮, 「山林經濟考」, 『朝鮮』, 1937.3.
- 三木榮, 「醫方類聚」, 『朝鮮』, 1937.9.
- 三木榮, 「朝鮮傳染病史」, 『中外醫事新報』, 1937.1-11.
- 三木榮, 「朝鮮の裁判醫學」, 『書物同好會會報』 5.
- 三木榮, 「故事撮要に載せられた八道冊版中の醫書」, 『書物同好會會報』 19.
- 三木榮, 「朝鮮醫書誌略解」, 『臨床文化』 11-12, 1942.
- 三木榮, 「郷藥集成方考」, 『日本醫史學雜誌』 11-12, 1942.
- 三木榮, 「郷藥集成方解説」, 『朝鮮學報』, 1942.1.
- 三木榮, 「朝鮮梅毒傳來史考」, 『東京醫事新誌』, 1949.5-6.
- 三木榮, 「安養院藏書中朝鮮醫書」, 『朝鮮學報』, 1951.1.
- 三木榮, 「李朝におけるコレラ流行」, 『朝鮮學報』 1953.5.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 自家出版, 1955).
- 三木榮, 『朝鮮醫書誌』(大阪: 學術院圖書刊行會刊, 1956).
- 三木榮, 「朝鮮醫學教育史」, 『朝鮮學報』, 1959.11.
- 三木榮, 「朝鮮の道教醫學」, 『朝鮮學報』, 1960.11.
- 三木榮, 「朝鮮疾病史」, 『日本醫史學雜誌』復刊1-4.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再版)(大阪: 自家出版, 1963a).
- 三木榮, 「日鮮中醫學交流史鳥瞰」, 『朝鮮學報』 21, 1963b.
- 三木榮, 「許浚の傳染病學」, 『朝鮮學報』, 1974.
- 三木榮, 『朝鮮醫事年表』(大阪: 思文閣出版, 1985).
- 崔秀漢, 『朝鮮醫籍通考』(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Donald Baker, "Sirhak Medicine: Measles, Smallpox, and Chong Tasan," *Korean Studies*, 1990.
- Dongwon Shin, "Nationalistic Acceptance of Sasang Medicine," *The Review of Korean*

SHIN Dongwon : Trends in Research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before the Modern Era

Studies 19-2, 2006.

Dongwon Shin, 『Korean Medical Discourses on Western Medicine, 1720-1876』, 『다산학』 15, 2009.

Dongwon Shin,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 Medicine: Discourses on the Body, Illustration and Dissec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1, 2010.

So Young Suh, “Korean Medicine between the Local and the Universal: 1600-1945,” Doctoral Dissertation, UCLA, 2006.

Myung Sun Chun, “新編集成馬醫方,” Doctoral Dissertaion,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2003).

- ABSTRACT -

Trends in Research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before the Modern Era

SHIN Dongwon *

Research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in the form of modern scholarship began with the publication in 1930 of Yi Neunghwa's (李能和)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Korea (朝鮮 醫藥 發達史)."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surveying studies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in the past 80 years since the publication of Yi's paper. In terms of periodization, research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is bifurcated by the publication of two comprehensive histories—i. e., Miki Sakae's (三木榮) *A History of Medicine and Disease in Korea*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3) and Kim Du-jong's (金斗鐘) *The Complet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韓國 醫學史 全; 1966). Indeed, all earlier studies converged in these two books. Because Miki and Kim both had majored in Western medicine and conducted research based on similar perspectives, data, and methods, the two works overlap considerably, and Kim's book, as the later of the two, unfortunately lost the initiative to the former to a considerable extent. As a result of these two scholars' research, it became possible to trace the overall flow of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works by Miki and Kim and with the advent of the 1980's, research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premodern Korea was renovated with the emergence of no fewer than some dozen new doctoral degree holders in the field. In fact, these young scholars went beyond surveying trends in each era to

*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Korea
Tel: 82-42-350-4647 / Fax:82-42-350-2380
E-mail: newsdw@kaist.ac.kr

expand the scope of specific discussions and topics per era, to delve into the actual contents, and to elucidate the function of medicine in society.

The fruits of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80 years on the history of medicine in premoder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before the 5th century AD: the existence of a comprehensive medical practice in regions inhabited by those considered to be the ancestors of the Korean people; and information on medication including ginseng. 2) 5th-10th centuries: the existence of professional medical posts; the management of medicine by the royal household; institutions for medical education; the import and use of Chinese medical texts (醫書); the compilation of independent medical texts; the transmission of medical knowledge to Japan; and the import and export of medicinal ingredients. 3) 10th-14th centuries: public medical organs; medicine focusing on domestic medication; the invitation of medical doctors and the transmission of new medicine from Song China; the inclusion of medicine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the compilation of diverse types of Korean medical texts including those on native medicinal ingredients (鄉藥); disaster relief organs; regional medical organs; regional medicinal ingredient tribute (貢納) system; and the state's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4) 14th-17th centuries: the consolida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he consolidation of Korean medicine including native medicinal ingredients; the emergence of a medical tradition that stresses the Daoist preservation of health (養生); and the publication of dozens of types of Chinese and Korean medical texts led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lso noteworthy is the emergence of simple medical texts on emergency relief (救急), pregnancy and childbirth (胎產), smallpox (痘瘡), and epidemics (疫病) as well as the dissemination of their vernacular editions. In addition, there were phenomena such as the increasing occupation of the posts of medical officials (醫官) by the non-aristocratic middling *jung'in* (中人) class; the existence of Confucian scholar-physicians (儒醫) and women physicians (醫女); and the compilation of texts on independent external medicine (外科). 5) 17th-19th centuries: the formation of medicinal ingredient markets (藥令市); the spread of pharmacies (藥房) throughout the provinces; a vogue for Ming Chinese medical texts; veneration for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the emergence of a positivistic stance

toward medical research; a vogue for experiential remedies (經驗方); interest in Western medicine; compilation of several medical texts on measles; criticism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漢醫學) and/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韓醫學); the spread of variolation (人痘法); attempts to introduce smallpox vaccination (牛痘法); Korean-Japanese medical exchange through the dispatch of Korean goodwill missions to Japan (朝鮮通信使); a great vogue for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in both China and Japan;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medical texts on acupuncture (鍼術); the successful cultivation and massive export of ginseng; and the birth of the Sasang (4-type) constitutional typology (四象醫學), a native medical tradition.

Key words : jinseng, native medicinal ingredients, Daoist preservation of health,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medical official, Confucian scholar-physicians, women physicians, medicinal ingredient markets (藥令市), variolation, constitutional typology (四象醫學)

